

SECTOR UPDATE

2026. 7. 13

금융/소비재팀

김재우 팀장

jaewoo79.kim@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종목 정보

KB금융 (105560 KS, 184,400)

목표주가 230,000원 24.7%

BUY

신한지주 (055550 KS, 109,200)

목표주가 138,000원 26.4%

BUY

하나금융지주 (086790 KS, 128,500)

목표주가 161,000원 25.3%

BUY

기업은행 (024110 KS, 21,250)

목표주가 26,000원 22.4%

HOLD

BNK금융지주 (138930 KS, 17,850)

목표주가 24,000원 34.5%

BUY

IM금융지주 (139130 KS, 17,850)

목표주가 24,000원 34.5%

BUY

JB금융지주 (175330 KS, 26,050)

목표주가 34,000원 30.5%

HOLD

카카오뱅크 (323410 KS, 22,900)

목표주가 28,000원 22.3%

HOLD

케이뱅크 (279570 KS, 5,520)

목표주가 7,500원 35.9%

BUY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은행 (OVERWEIGHT)

2Q 프리뷰 - “은행 ROE = 10%”라는 선입견을 넘어

- 은행 2Q 실적은 5.7% y-y의 견조한 이익 증가를 전망. 특히, 머니무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이자이익 성장과 증권 계열사 중심 비은행 이익 성장에 초점.
- 특히, 사이클 전환, 증권사 중심 비은행 개선, 디지털 기반 영업 레버리지 확대가 은행 ROE는 10%가 한계라는 선입견을 타파, Re-rating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은행업에 긍정적 시각 유지. 매력적인 Valuation, 업황 사이클 개선 및 구조적 변화 통한 이익 성장 및 ROE 상승, 실적 개선 기반 주주환원 증가가 핵심.

WHAT'S THE STORY?

2Q26 실적 - 이자이익 성장과 증권사 중심 비은행 실적 개선의 콜라보: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당초 전망대비 실적 개선을 예상. 1) 2Q 중 시중금리 상승 및 기업대출 중심 여신 성장으로 이자이익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고, 2) 증권사를 중심으로 비은행 부문의 실적 또한 개선될 여지가 크기 때문.

2Q 실적의 초점 1. 견조한 이자이익 증가 - 대출성장과 NIM: 2Q 실적 개선의 일차적 핵심은 이자이익의 견조한 성장. 기업대출 중심 1.7% q-q의 대출 성장률과 시중금리 상승 속 NIM의 견조한 방어 혹은 일부 개선이 핵심.

2Q 실적의 초점 2. 비은행 - 은행도 증권 있어요: 2Q에도 증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그룹 산하 증권사들 또한 견조한 실적 개선을 기대. 특히, 브로커리지 부문의 강점을 보유한 증권사 보유 유무에 따른 실적 차별화 전망.

국내 은행 ROE = 10%라는 선입견 탈피 원년 기대: 은행 ROE = 10%라는 선입견은 장기간 은행주 Valuation에 걸림돌로 작용. 그러나, 올해 은행들은 실적을 통해 이러한 선입견을 타파, Valuation 상단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ROE 10% 상회 기대 이유 - 사이클, 비은행, 영업 레버리지의 삼박자: 은행 ROE가 10%를 넘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1) 금리와 대출성장, 총당금 등으로 대변되는 은행업 사이클의 개선이 이미 시작되었고, 2) 증권사를 중심으로 비은행 부문의 구조적 이익 레벨업이 그룹 연결 ROE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3)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판관비 증가보다 매출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나는, 소위 Operating Leverage의 확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

주주환원 우위 기업 및 비은행 부문 실적 기여도 개선 역량 보유 기업에 초점: 은행업종 내에서는 비은행 부문 중심 ROE 개선 및 차별화된 주주환원 시현이 기대되는 KB금융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또한, ROE 격차가 크지 않고 주주환원율이 50%를 넘어서는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의 Valuation 매력도에도 초점 필요. 한편, 중소형 금융그룹 및 인터넷은행은 차별화된 실적 개선과 이에 상응하는 주주환원 증가를 통한 플러스 알파 창출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

II. 2Q26 Preview

– 이자이익이 끌고 비은행이 밀고

2Q26 실적 – 이자이익 성장과 증권사 중심 비은행 실적 개선의 콜라보

2Q 실적 상황 조정 – 이자이익 성장 및 증권사 중심 비은행 실적 개선 반영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2Q 실적은 당초 전망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 2Q 중 시중금리 상승으로 NIM은 방어 혹은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고, 2) 기업대출 중심 대출 성장이 맞물리며 이자이익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며, 3) 증권사를 중심으로 비은행 실적 또한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는 은행들의 2Q 이익을 5.4% 상향 조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당사 커버리지 하 은행들의 2Q 당기순이익은 2.2% q-q, 5.7% y-y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1) NIM의 방어 혹은 상승 및 견조한 대출 성장률에 따른 이자부자산 증가가 이자이익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2) 2Q25 중 0.52%로 높았던 Credit cost가 선제적 충당금 적립에 따른 충당금 부담 완화 및 비은행 부문의 충당금 감소 등으로 인해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Q26 이익전망 변경

(십억원)	2Q26E	증감률 (%)		기준 추정치	차이 (%)	컨센서스	vs 컨센서스 (%)	실적 발표 일정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KB금융	1,935.4	2.3	11.3	1,858.3	4.2	1,877.4	3.1	7월 23일
신한지주	1,655.5	2.0	6.9	1,609.2	2.9	1,658.0	(0.1)	7월 23일
하나금융	1,301.9	7.6	11.0	1,150.2	13.2	1,237.9	5.2	7월 24일
기업은행	701.9	(6.3)	1.2	640.2	9.6	701.2	0.1	7월 27일
BNK금융	245.4	16.1	(20.6)	251.4	(2.4)	260.5	(5.8)	7월 28일
iM금융	146.4	(5.3)	(5.5)	144.9	1.0	153.3	(4.5)	7월 27일
JB금융	206.4	24.3	(0.6)	209.8	(1.6)	212.0	(2.6)	7월 23일
카카오뱅크	132.9	(29.0)	5.3	137.2	(3.1)	135.1	(1.6)	8월 5일
케이뱅크	37.5	12.9	(45.0)	36.6	2.5	N/A	-	7월 30일
합계	6,363.3	2.2	5.7	6,037.7	5.4	*6,235.4	1.4	

참고: 컨센서스는 Enguide 기준, 컨센서스 합계는 케이뱅크 제외 기준

자료: 각 사, Wisefn, 삼성증권 추정

분기별 이익 추이 및 전망

(십억원)	1Q26	2Q26E	3Q26E	4Q26E	1Q27E	2Q27E	3Q27E	4Q27E
KB금융	1,892.4	1,935.4	1,857.6	1,070.3	2,071.9	2,078.4	1,971.8	1,180.3
신한지주	1,622.6	1,655.5	1,701.4	824.7	1,797.9	1,761.4	1,828.6	887.5
하나금융	1,210.1	1,301.9	1,251.5	761.5	1,328.3	1,412.9	1,334.1	888.1
기업은행	748.7	701.9	818.4	564.2	746.3	695.7	854.9	609.4
BNK금융	211.4	245.4	274.9	123.3	242.5	277.9	308.1	132.0
iM금융	154.5	146.4	164.4	58.0	160.8	171.8	185.6	69.5
JB금융	166.1	206.4	220.0	137.6	197.8	226.0	235.3	144.1
카카오뱅크	187.3	132.9	141.2	156.2	170.6	171.0	171.4	179.8
케이뱅크	33.2	37.5	43.6	29.9	61.4	65.8	49.2	37.6
합계	6,226.3	6,363.3	6,473.0	3,725.9	6,777.4	6,860.9	6,939.0	4,128.3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추정

연간 이익 상황 조정 – 은행별 실적 전망 차별화

26년 연간이익을 4.3%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할 전망이다 만큼, 올해 연초 예상에 비해 NIM의 상승 여력이 더 커졌고, 2)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와 더불어 일부 수출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대출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3) 머니무브로 대변되는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 증가로 금융그룹 산하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 폭도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은행 부문 중심으로 은행별 실적 차별화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핵심은 증권사로써 KB금융과 같이 자본 여력이 높고 리테일 브로커리지는 물론 IB부문의 이익 다변화 역량이 양호한 증권사를 보유한 금융그룹들의 실적 개선 폭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모든 지표가 장미 빛인 것은 아니다. 1)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은행들의 총당금 적립 기조는 다소 보수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2) 2Q 중 일부 은행들은 JTBC 및 관계사들에 대한 총당금 부담을 인식할 전망이며, 3) 머니무브에 따른 개인들의 은행 예금 이탈이 5월부터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은행들이 조달금리를 일부 인상하는 등 NIM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의 실적 개선세는 올해를 넘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앞서 언급된 우려 사안들은 상당 부분 단기적인 이슈로 중장기 흐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고, 2) 은행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대출성장률, 자산건전성 등의 업황 사이클은 수 년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3) 머니무브 속에서 은행계 금융그룹들은 기업금융과 비은행 계열사들의 강화, 그리고 그룹 내 시너지 제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이익 추이 및 전망

(십억원)	2025	2026E	YoY (%)	2026E 기존 추정치	차이 (%)	2027E	YoY (%)	2027E 기존 추정치	차이 (%)
KB금융	5,833.2	6,755.7	15.8	6,339.0	6.6	7,302.3	8.1	6,893.8	5.9
신한지주	4,971.6	5,804.3	16.7	5,544.1	4.7	6,275.4	8.1	6,150.8	2.0
하나금융	4,002.9	4,628.3	15.6	4,386.4	5.5	4,963.4	7.2	4,932.8	0.6
기업은행	2,711.1	2,833.1	4.5	2,799.5	1.2	2,906.4	2.6	2,966.6	(2.0)
BNK금융	815.0	876.5	7.5	869.4	0.8	956.5	9.1	980.9	(2.5)
IM금융	443.9	523.3	17.9	522.0	0.3	587.7	12.3	578.8	1.5
JB금융	710.4	730.2	2.8	736.8	(0.9)	803.2	10.0	798.4	0.6
카카오뱅크	480.3	617.7	28.6	620.0	(0.4)	692.8	12.2	660.4	4.9
케이뱅크	112.7	144.2	28.0	141.1	2.2	214.1	48.4	205.0	4.4
합계	20,080.9	22,913.3	14.1	21,958.4	4.3	24,701.6	7.8	24,167.5	2.2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추정

한편, 당사는 은행들의 목표주가를 일부 미세조정하였다. 1) 기업금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비은행 부문의 강화 혹은 회복이 기대되는 3대 금융지주에 대한 목표주가는 소폭 상향한 반면, 2) 머니무브에 따른 부담의 완충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기업금융에 대한 경쟁 심화를 감안하여 중소형 은행 및 인터넷은행은 소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3) 케이뱅크는 업비트 관련된 불확실성 확대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목표주가 변경

	투자의견	변경 전	변경 후	차이 (%)	현재가	상승 여력 (%)	목표 PBR
KB금융	BUY	200,000	230,000	15.0	184,400	24.7	1.4
신한지주	BUY	128,000	138,000	7.8	109,200	26.4	1.2
하나금융	BUY	157,000	161,000	2.5	128,500	25.3	1.0
기업은행	HOLD	26,000	26,000	0.0	21,250	22.4	0.7
BNK금융	BUY	25,000	24,000	(4.0)	17,850	34.5	0.7
IM금융	BUY	25,000	24,000	(4.0)	17,850	34.5	0.7
JB금융	HOLD	36,000	34,000	(5.6)	26,050	30.5	1.1
카카오뱅크	HOLD	31,000	28,000	(9.7)	22,900	22.3	1.9
케이뱅크	BUY	9,000	7,500	(16.7)	5,520	35.9	1.1
평균							1.1

참고: 7월 10일 종가 기준 / 평균은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 제외 기준 / 목표 PBR은 '26년 BPS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1. 대출 성장률 – 기업대출이 성장 견인 vs 가계대출 증가 폭도 예상 상회

2Q 대출 성장률은 은행들이 당초 제시한 5% 내외의 연간 대출 성장률 가이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Q 대출 잔액은 1.7% q-q, 3.9% y-y 증가하였다. 1) 생산적 금융 중심의 기업대출이 전반적인 대출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2) 1Q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 속도가 제고되었고, 3)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1-1. 가계대출, +1.4% q-q – 부동산 거래 증가 및 증시 호조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가 견인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1.4%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1% q-q, 기타대출이 2.7% q-q 증가하였다. 1)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2)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며 주택담보대출 성장을 견인하였고, 3) KOSPI가 연이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가계의 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자극된 결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이 올해 1.5% 이내로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1) 5대 시중은행이 상반기 중 늘린 가계대출은 3.7조원으로 올해 부여된 한도 4.3조원의 85%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2)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중 현재 한도 96.7조원 대비 실제 실행액은 43.3조원으로, 소진율은 44.8%에 불과한 만큼, 추가적인 증가 여력이 남아 있고, 3) 은행들의 올해 가계 대출 여력 소진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구제와 금융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인 포용금융 확대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감안할 때, 2Q 중 나타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하반기에는 재차 둔화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1) 최근 가계 소득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2) 금융당국은 은행은 물론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7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한도를 당초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한도를 축소하였고, 별도의 최대 대출 한도 규제가 없던 비규제지역에도 동일하게 3억원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1-2. 기업대출, +1.9% q-q – 생산적 금융 영향 속 중소기업대출로 온기 확산 확인

은행의 기업대출은 1.9% q-q 증가하였다. 대기업대출이 4.4% q-q, 중소기업대출이 1.2% q-q 성장하며 여전히 대기업 대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Q 중 기업대출 순증액 중 대기업이 51.5%).

다만, 기업대출 성장의 중심이 중소기업대출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이 필요하다. 월별 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대출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월 38.6%에서 점차 늘어나 3월부터 5월까지 50%를 상회하였다. 이는 생산적 금융이 대기업 대출에서 중소기업으로 낙수효과가 점차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하반기 중소기업대출이 전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한다. 실제로 기업 경기 및 기업 경기 심리지수는 2Q 들어 개선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지난 분기 조정을 거쳤던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재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추세적 개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은행 월별 대출 증감액 규모

(조원)	2025년						202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월 (% m-m)	6월 (% y-y)
가계	2.7	4.1	1.9	3.5	1.9	(2.0)	(0.9)	(0.4)	0.5	2.1	6.9	7.6	0.6	2.4
주택담보	3.3	3.9	2.4	2.1	0.7	(0.5)	(0.4)	0.3	0.0	2.7	3.2	4.2	0.4	2.4
가계일반	(0.6)	0.2	(0.5)	1.4	1.2	(1.5)	(0.5)	(0.7)	0.5	(0.6)	3.7	3.4	1.4	2.5
기업	3.4	8.4	5.3	5.9	6.2	(8.3)	5.7	9.6	7.8	10.7	10.6	5.1	0.4	5.2
대기업	0.5	3.9	1.3	0.2	2.4	(2.0)	3.5	5.2	3.3	5.0	5.2	3.4	1.1	11.1
중소기업	2.9	4.5	4.0	5.7	3.8	(6.3)	2.2	4.4	4.5	5.7	5.4	1.7	0.2	3.7
총대출	6.1	12.5	7.2	9.4	8.1	(10.3)	4.8	9.2	8.3	12.8	17.5	12.7	0.5	3.9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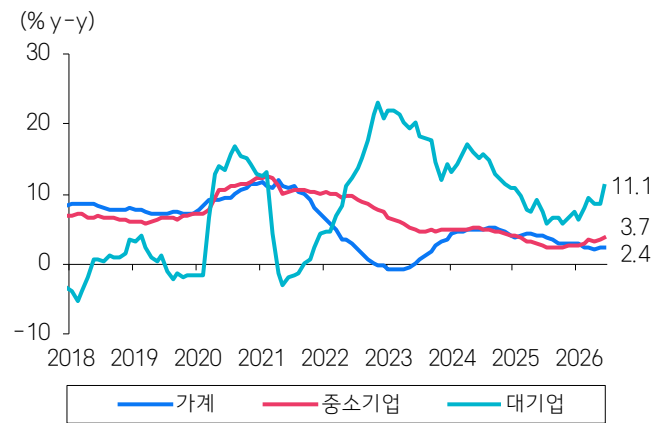
예금은행 분기별 대출 성장률

(% q-q)	2Q25	3Q25	4Q25	1Q26	2Q26
가계대출	1.4	0.7	0.3	(0.1)	1.4
주택담보	1.5	1.0	0.2	(0.0)	1.1
가계일반	1.4	(0.4)	0.5	(0.3)	2.7
기업대출	1.4	1.3	0.3	1.7	1.9
대기업	3.0	2.0	0.2	4.1	4.4
중소기업	1.0	1.1	0.3	1.0	1.2
총 대출	1.4	1.0	0.3	0.9	1.7

참고: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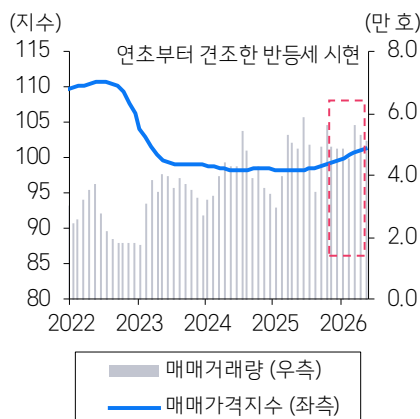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부문별 대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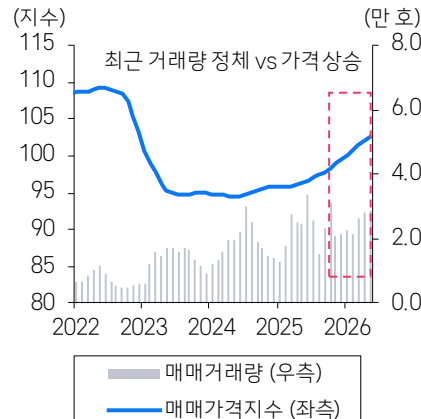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전국: 아파트 거래량 vs 매매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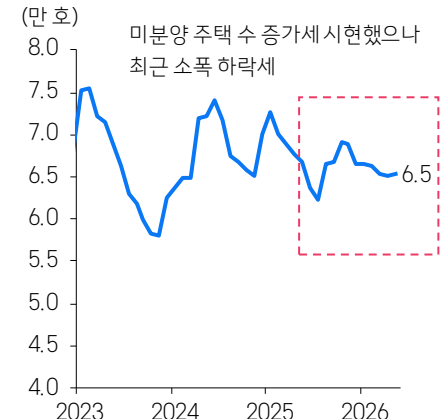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삼성증권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vs 매매가격지수



자료: 한국부동산원, 삼성증권

전국 주택 미분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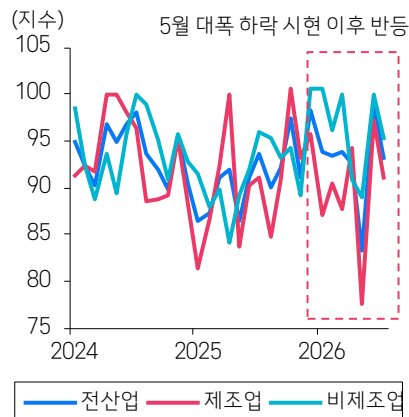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삼성증권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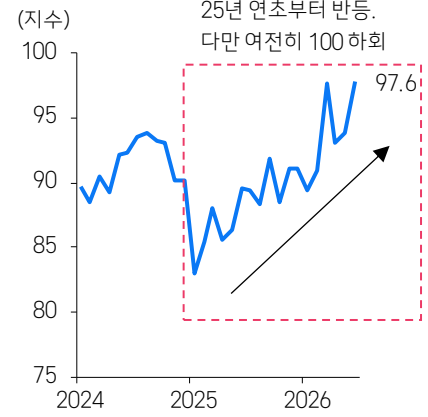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기업경기실사지수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삼성증권

기업경기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2. NIM – 금리 상승은 긍정적이나 머니무브에 따른 은행별 차별화 전망

은행 NIM은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일부 개선되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 잔액기준 NIS는 5월 기준 2.28%로 1Q 평균 (1~3월 단순평균 기준) 대비 2bp 상승하였다.

다만, 은행별로 일부 차별화가 예상된다. 수신 부문에서의 기업 비중이 높아 조달 부문에서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Re-pricing 효과에 있어 유리한 은행들의 NIM이 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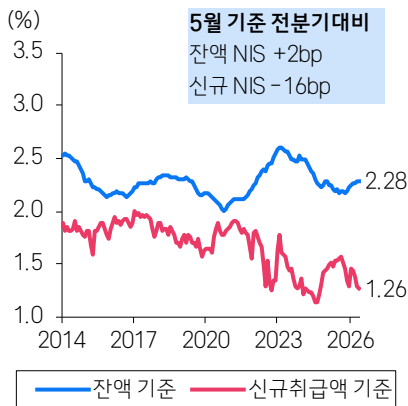
긍정적 요인 1. 금리 상승에 따른 NIM 개선 효과 지속

은행 NIM 상승을 기대하는 일차적 원인은 금리 상승 및 이에 기반한 대출금리 Re-pricing이다. 1) 2Q 평균 코픽스 금리 (공시일 4~6월 기준)는 신규 기준 2.87%로 1Q 2.80% 대비 7bp 상승하였고, 2)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은 6월 4.24%로 3월 4.05% 대비 19bp 상승하였다. 3) 또한 회사채 금리의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월 말 3.70%로 3월 3.55% 대비 15bp 상승세를 이어갔다.

긍정적 요인 2. 모기지 금리 변동주기 도래에 따른 Re-pricing 효과도 긍정적으로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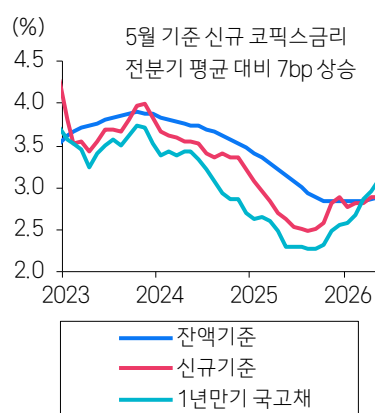
특히, 변동주기가 5년인 모기지의 금리 Re-pricing 효과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년 전인 21년 5월 판매된 주담대 금리는 2.69%였던 가운데, 5월 신규 주담대 금리는 4.32%로 당시 대비 163bp 높기 때문이다.

NIS: 잔액기준 vs 신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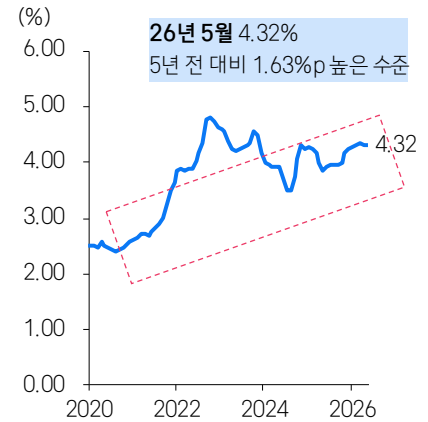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코픽스 금리 vs 1년 만기 국고채 금리



자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은행 평균 주담대 금리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반면, 개인 수신 머니무브는 은행 NIM에 부담으로 작용

연초부터 유례없는 증시 강세로 인해 머니무브에 따른 은행 수신 이탈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하지만, 2Q 중 은행의 수신은 오히려 70.8조원 증가하며 2Q24 및 2Q25의 18.6조원 및 21.6조원보다도 증가 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를 기업과 가계로 나눠보면 은행의 개인 수신 이탈은 5월 들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4월까지 가계의 수신 잔액은 연초대비 4.4조원 증가했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중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수신은 10조원 감소하였고, 6월에도 유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개인 수신에서의 머니무브 부담은 은행 NIM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은행은 수신 금리 인상을 통해 자금 이탈에 대응해야 할 압력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월 기준 3.06%로 3월말 대비 13bp 상승하였고, 2) 같은 기간 신규 기준 평균 수신금리는 12bp 상승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신규 대출금리가 4bp 하락한 것과 대비되며, 3) 특히 6월에는 예년과 달리 정기예금이 순증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평균 조달비용률의 상승을 의미한다.

은행 수신 기간중 잔액 증감

(조원)	2024				2025				2026				26년 3월 잔액
	2Q24	4월	5월	6월	2Q25	4월	5월	6월	2Q26	4월	5월	6월	
은행	18.6	(32.8)	25.0	26.4	21.6	(25.9)	20.2	27.3	70.8	(6.8)	48.8	28.8	2,622.5
수시입출식	(9.4)	(45.0)	(1.2)	36.8	8.6	(36.8)	7.0	38.4	26.2	(18.8)	32.8	12.2	1,036.9
정기예금	6.7	(4.7)	13.9	(2.5)	12.6	0.5	19.2	(7.1)	34.7	4.7	15.8	14.2	1,101.4
은행채	9.6	8.1	5.8	(4.3)	0.2	2.1	(3.2)	1.3	6.6	(1.4)	2.8	5.2	353.1
CD	4.5	4.9	1.6	(2.0)	(4.7)	3.9	(2.8)	(5.8)	1.4	6.2	(0.8)	(4.0)	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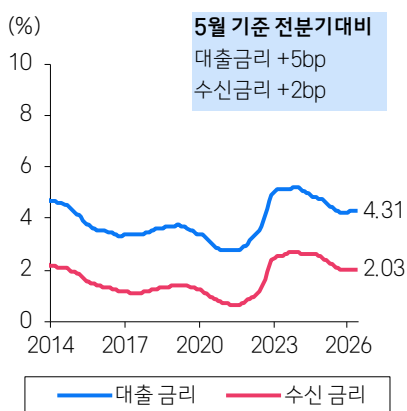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예금은행 수신 구성 및 증감

(조원)	12월	1월	2월	3월	4월	순증 (YTD)	% YTD
총 수신	2,189.7	2,148.2	2,198.2	2,222.7	2,216.7	26.9	1.2
가계	997.3	995.1	997.9	998.2	1,001.8	4.4	0.4
요구불	145.5	146.8	148.5	149.5	151.3	5.8	4.0
정기	851.8	848.3	849.4	848.6	850.5	(1.3)	(0.2)
기업 및 기타	1,192.4	1,153.1	1,200.3	1,224.5	1,214.9	22.5	1.9
요구불	208.9	197.1	209.0	215.7	212.5	3.6	1.7
정기	983.5	956.0	991.4	1,008.9	1,002.4	18.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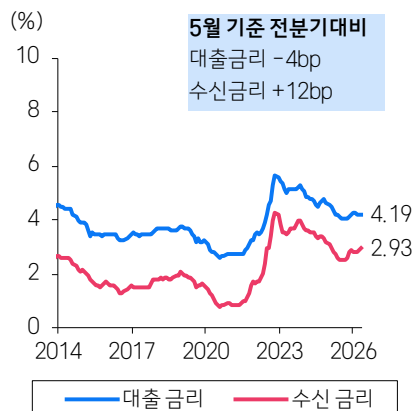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잔액기준 대출금리 vs 수신금리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vs 수신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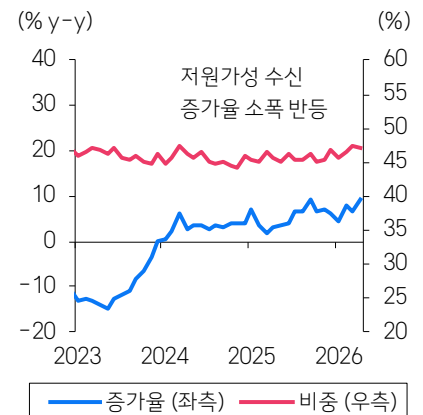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5대 은행 5월 중 수신 변화

(십억원)	증감
기업	총계 36,893.9
	요구불 및 MMDA 28,102.7
	정기예금 8,791.2
가계	총계 (9,997.5)
	요구불 (8,739.1)
	정기예금 (1,258.4)
총계	26,896.4

자료: 언론 보도 정리

저원가성 수신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다만, NIM 차별화 전망 1. 기업 수신에 따른 차별화

다만, 이에 따른 NIM 영향은 은행별로 차별화되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기업수신 자금의 유입이다. 1) 기업자금 수신은 4월까지 22.5조원 증가하며 은행의 연초대비 수신 증감액의 83.6%를 차지하였고, 2) 5월 중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가계 수신이 10조원 감소하는 상황에서 37조원 증가하며 그 영향을 모두 상쇄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3) 기업자금 상당 부분은 요구불 예금 혹은 MMDA로 유입되며 조달 금리 측면에서도 은행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업 수신 자금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NIM은 상대적으로 방어가 원활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NIM 차별화 전망 2. 변동금리부 가계대출 비중

또 다른 차별화 요인은 변동금리부 가계대출 비중이다. 이들 대출은 시중금리 상승을 반영하는 주기가 짧은 만큼, 시중금리 상승 구간에서 자산 운용 수익률 Re-pricing에 따른 NIM 개선 효과가 컸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된 은행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이다. 이들 은행은 저원가성 수신 비중이 높은 점은 강점이지만, 여전히 높은 가계 수신 비중은 NIM에 부담 요인이다. 하지만, 이들 은행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Re-pricing 주기가 짧은 만큼, 오히려 NIM은 시중은행대비 견조한 개선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들 은행의 NIM은 1Q 중 각각 6bp 및 17bp q-q 급등한 가운데, 조달 부문에서의 부담이 커지는 2Q에도 mid-single digit 수준의 NIM 상승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NIM 차별화 전망 3. 일회성 요인도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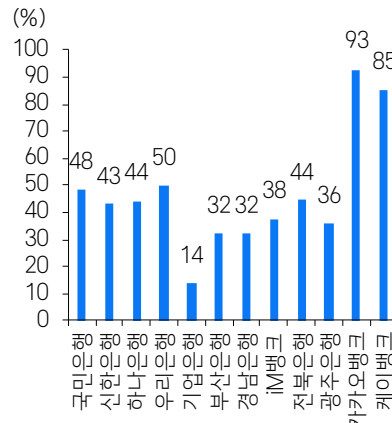
한편, NIM과 관련된 일회성 요인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1Q 중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 NIM 상승 폭이 컸던 은행들은 기저효과가 2Q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일회성 요인 부담에 따른 NIM의 일시 조정보다는 추세적인 개선 여력에 보다 초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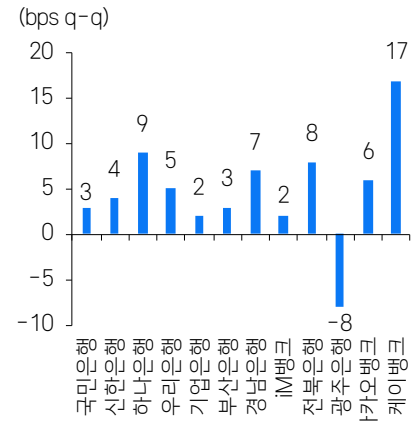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참고: 1Q26 기준
자료: FHS, 삼성증권

1Q 중 은행별 NIM 변동 폭



자료: 각 사, 삼성증권

3. 이자이익 – 증가세 지속 통해 이익 체력 강화 확인 기대

은행들의 2Q 이자이익은 전년동기대비 9.4%, 전분기대비 1.8%의 견조한 증가세를 전망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견조한 대출 성장률 전망과 더불어, 2) NIM의 방어(혹은 소폭 개선)에 기인한다.

상반기 중 이어지는 이자이익의 견조한 증가세는 은행의 이익 체력 강화 확인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요인이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금리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일각에서는 자산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도 일부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 이자이익의 견조한 성장은 일차적으로 이들 리스크의 완충 역할은 물론, 궁극적으로 은행의 이익 창출 체력 제고 및 이에 따른 올해 속도감 있는 실적 개선을 시사한다는 점에 초점이 필요하다.

은행 이자이익 증가 추이

(십억원)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E	증감률 (% y-y)	증감률 (% q-q)
국민은행	2,579.9	2,515.8	2,575.3	2,596.7	2,607.7	2,683.1	2,770.4	2,767.6	2,801.0	7.4	1.2
신한은행	2,195.7	2,224.7	2,232.5	2,230.1	2,235.1	2,309.2	2,395.4	2,403.5	2,471.0	10.6	2.8
하나은행	1,913.6	1,900.2	1,955.9	1,935.9	1,962.4	2,041.1	2,133.4	2,184.3	2,198.7	12.0	0.7
3대 은행 소계	6,689.2	6,640.7	6,763.7	6,762.7	6,805.2	7,033.4	7,299.3	7,355.4	7,470.7	9.8	1.6
기업은행	1,975.3	1,956.6	1,982.4	1,920.9	1,882.7	1,952.8	1,993.1	1,991.9	2,027.4	7.7	1.8
부산은행	383.8	379.4	382.3	379.7	392.4	387.7	395.5	397.7	397.9	1.4	0.1
경남은행	255.3	254.2	256.0	254.6	254.9	255.8	264.4	274.5	275.5	8.1	0.4
이뱅크	390.9	380.5	380.1	365.3	371.1	373.7	390.1	385.3	396.7	6.9	3.0
전북은행	174.3	175.2	180.0	182.3	186.2	188.9	194.0	193.0	200.0	7.4	3.7
광주은행	215.5	212.5	208.0	201.8	204.1	213.7	216.4	211.1	215.4	5.6	2.0
카카오뱅크	314.7	327.0	326.6	323.4	318.6	320.4	356.3	373.4	395.5	24.1	5.9
케이뱅크	128.6	107.4	109.9	108.5	103.3	111.5	121.0	125.2	130.0	25.8	3.8
합계	10,528	10,433	10,589	10,499	10,518	10,838	11,230	11,307	11,509	9.4	1.8

참고: 은행 기준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추정

4. 대손충당금 – Credit cost의 하향안정화 기대

은행의 2Q Credit cost는 전년동기대비 하향안정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성 지표는 추가적으로 악화 가능

건전성 지표는 2Q에도 추가적으로 악화될 여지가 있다. 1) 금감원 발표 4월 연체율은 0.61%로 전월대비 5bp 상승하였고, 2)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불안 요인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전망이다, 3) 일부 은행은 거액여신 부실에 따른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2Q Credit cost는 전년동기대비 완만한 개선 예상 – 전년동기 기저효과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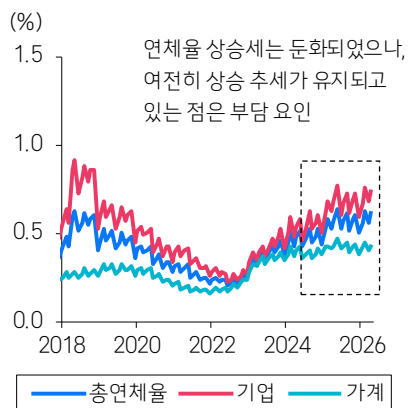
그러나,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와 달리 2Q Credit cost는 전년동기대비 완만한 하향안정화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해 상반기 말 은행들의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 강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신규 거액 여신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담보 설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충당금 부담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의 Credit cost가 2Q 중 급격히 개선되기보다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당초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Credit cost 사이클은 하반기에도 완만한 개선세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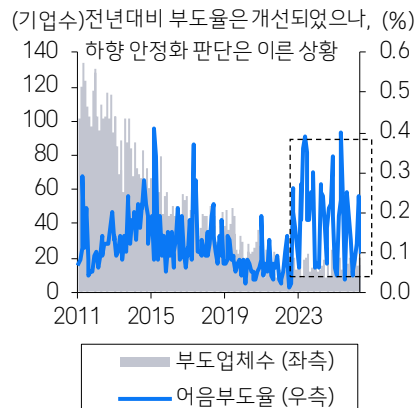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지만, 은행들의 충당금 사이클은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1) 올해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강화로 인해 유동성 환경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 일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실적 개선이 궁극적으로 투자, 가계 소득 및 정부 세수 확대에 따른 선순환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고, 3) 은행들은 코로나19 이후 수 년간에 걸쳐 부동산 PF 등 부실 정리에 나섰던 만큼 잠재적 손실 부담 또한 크게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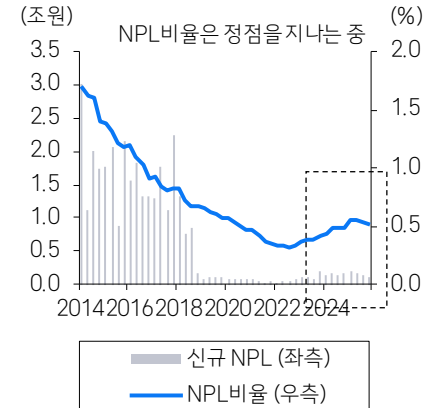
자료: 금감원, 삼성증권

부도 업체 수 및 어음 부도율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NPL 비율 vs 신규 NPL 추이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별 Credit cost 추이

(%)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E
KB금융	0.49	0.43	0.48	0.56	0.55	0.30	0.57	0.40	0.37
신한지주	0.49	0.44	0.58	0.42	0.59	0.44	0.43	0.46	0.43
하나금융	0.26	0.26	0.42	0.29	0.32	0.26	0.34	0.20	0.21
기업은행	0.60	0.59	0.64	0.40	0.56	0.56	0.70	0.46	0.50
BNK금융	0.70	0.72	1.08	0.93	0.55	0.46	0.69	0.53	0.54
이M금융	1.94	0.74	0.95	0.46	0.53	0.64	0.47	0.51	0.54
JB금융	1.16	0.85	0.94	1.06	0.83	0.78	1.03	0.90	1.01
합계	0.53	0.45	0.57	0.46	0.51	0.39	0.51	0.40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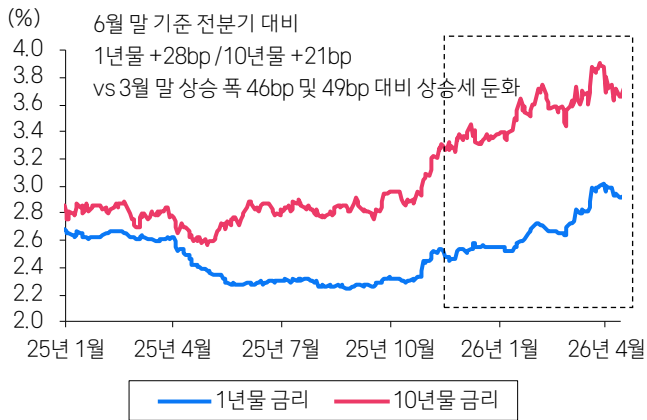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추정

5. 기타 일회성 요인 점검 – 유가증권 관련 손실 부담은 완화 + 증권사 실적 개선 지속

5-1.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손실 부담 완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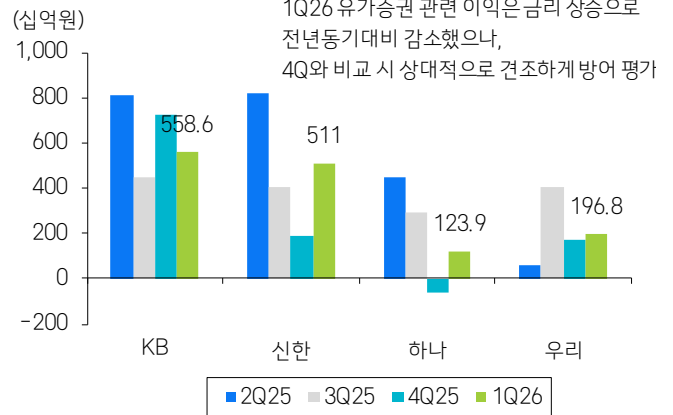
시중금리 상승세 지속은 여전히 유가증권 관련 손익에 부담 요인이지만, 전분기에 비해 일부 완화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국고채 금리는 1년물과 10년물이 6월 말 기준으로 3월 말 대비 각각 28bp 및 21bp 상승하였는데, 이는 3월 말 기준 상승 폭 46bp 및 49bp보다 크게 낮아졌고, 2) 2Q 중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증가 등이 맞물렸던 만큼, 은행들 또한 금리 상승 지속에 대해 대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던 1Q26의 유가증권 관련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지만, 4Q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방어된 모습을 보였던 점에 초점이 필요하다.

국고채 금리 추이 1년물 vs 10년물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은행별 유가증권 관련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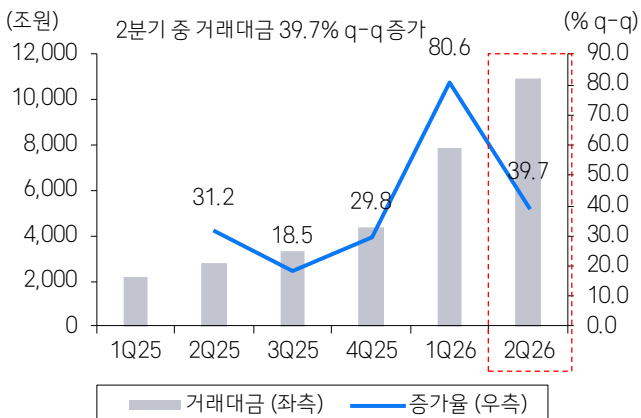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5-2. 2Q26 거래대금 급증 - 브로커리지 강점 증권 계열사 실적 개선 기대

1Q에 이어 2Q에도 증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그룹 산하 증권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이 2Q에도 그룹 연결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당사 커버리지 하 은행계 증권사들의 증시 거래대금은 2Q26 중 38.3% q-q, 315.9% y-y 증가하였다. 이에 1Q 중 217.7% q-q, 95.8% y-y 증가한 은행계 증권사들의 실적은 2Q에 추가 개선을 시현했을 전망이다.

참고로, 당사 커버리지 하 은행계 금융그룹 중 브로커리지 부문 강점을 보유한 기업들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순이다. 이들 그룹의 증권 계열사들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1Q26 7,395억원으로 가파른 실적 개선을 보인 가운데, 2Q에도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그룹 전반의 이익 성장 기여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증시 거래대금 vs 증가율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삼성증권

은행계 증권사별 거래대금 추이

(조원)	2Q25	3Q25	4Q25	1Q26	2Q26	% q-q	% y-y
KB	160.9	189.7	262.3	507.4	720.9	42.1	348.1
신한	235.3	299.4	404.9	705.1	937.3	32.9	298.3
하나	52.9	63.3	82.8	145.4	205.5	41.3	288.5
BNK	21.9	30.3	37.7	68.0	113.1	66.3	416.3
iM	19.8	23.2	29.6	49.5	64.2	29.7	224.4
합계	490.8	605.9	817.3	1,475.4	2,041.0	38.3	315.9

자료: 연합인포맥스, 삼성증권

은행계 증권사별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 추이

(%)	2Q25	3Q25	4Q25	1Q26	2Q26	%p-q	%y-y
KB	5.69	5.66	6.03	6.46	6.57	0.11	0.88
신한	8.33	8.94	9.31	8.97	8.54	(0.43)	0.21
하나	1.87	1.89	1.90	1.85	1.87	0.02	0.00
BNK	0.78	0.90	0.87	0.87	1.03	0.16	0.25
iM	0.70	0.69	0.68	0.63	0.59	(0.04)	(0.11)

자료: 연합인포맥스, 삼성증권

은행계 증권사별 당기순이익 추이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 q-q	% y-y
KB	179.9	159.0	157.8	177.2	347.8	96.3	93.3
신한	107.9	151.0	100.5	22.3	288.4	1,193.3	167.3
하나	75.3	31.5	62.8	42.4	103.3	143.6	37.2
3사 소계	363.1	341.5	321.1	241.8	739.5	205.8	103.7
BNK	5.7	16.8	6.7	(6.2)	9.3	흑전	63.2
iM	25.9	26.6	12.9	7.6	23.9	214.5	(7.7)
합계	394.7	384.9	340.7	243.2	772.7	217.7	95.8

자료: 각 사, 삼성증권

5-3.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제한적 전망

2Q 중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은 일부 은행들의 외화환산손실을 야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Q 중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이 28원/달러로 제한된 만큼, 실제 실적 부담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하나금융 2Q26 외화환산손익 추정

	1Q26 환율 변동폭 (원/달러)	1Q26 환차손	환율 변동 10원/달러당 외화환산손익	2Q26 환율 변동폭	2Q26 외화 환산손익 추정
하나금융	78.5	82.3	10.5	28.1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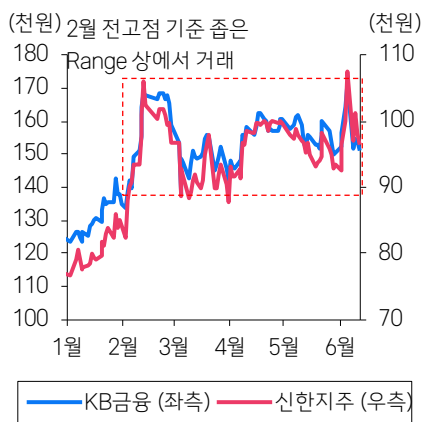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추산

II. 은행 ROE 10%를 넘어 구조적 상승 가능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Re-rating 여력에 초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매크로 불확실성 – 글로벌 은행주의 박스권에 대한 일차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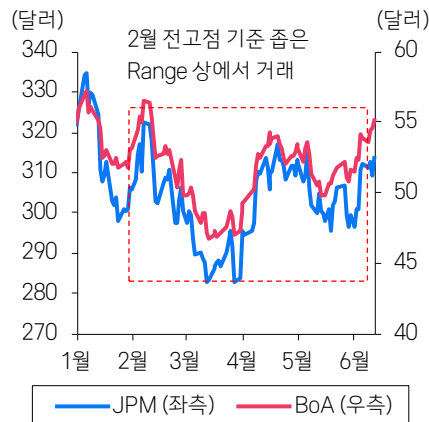
KOSPI의 유례없는 상승 속에서 은행주는 2월 전고점을 쉽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차적 원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에 판단된다. 즉,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경제 활력 약화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행업종의 박스권 장세는 미국, 유럽의 주요 은행들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인이라는 논리는 더욱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은행 주가 추이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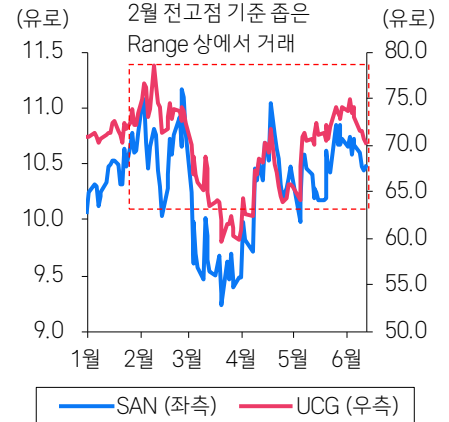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주요 은행 주가 추이 (미국)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주요 은행 주가 추이 (유럽)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국내 은행업종은 PBR 1배가 또 다른 걸림돌 – 국내 은행 ROE = 10%라는 선입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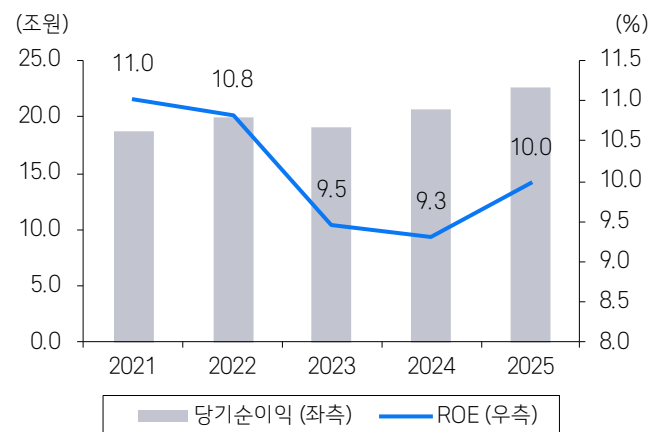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국내 은행업종의 전고점인 KB금융의 PBR 1배는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은행업종의 상승세는 KB금융이 PBR 1.0배에 근접하는 시점에서 꺾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한국 은행 ROE = 10%”라는 선입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은행업종의 ROE는 장기간에 걸쳐 10%를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는 암묵적으로 국내 은행업종의 PBR 상단은 1.0배라는 선입견으로 굳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KB금융 주가 vs PBR 추이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은행업 ROE vs 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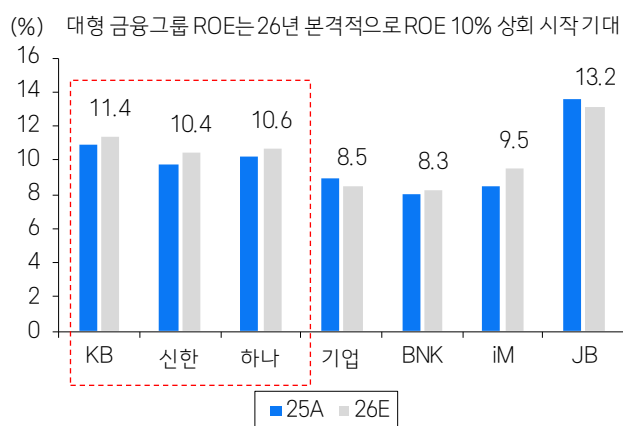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 하 전통 은행 기준 평균 ROE 및 합산 당기순이익
자료: 각 사, 삼성증권

하지만, 은행들은 실적을 통해 선입견 타파 시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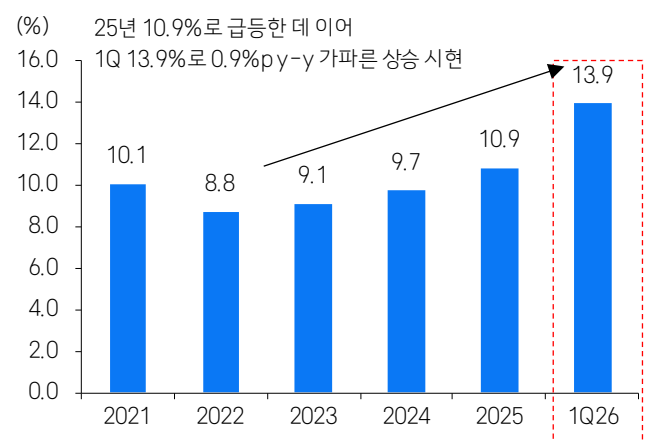
하지만, 올해 은행들은 실적을 통해 은행 ROE는 10%가 한계라는 선입견을 타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해 KB금융이 홍콩 ELS 관련 총당금 부담과 더불어 상반기 중 보수적 총당금 적립 기조에도 불구하고 ROE 10.9%를 기록하며 실적 개선 노력은 이미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향후 은행들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ROE를 창출할 경우, 선입견을 탈피함은 물론 새로운 컨센서스를 재구축함으로써 Valuation의 Re-rating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별 ROE – 25A vs 26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추정

KBROE 추이



참고: 1Q26은 연율화 기준
자료: KB금융, 삼성증권

ROE는 10%를 넘어 1. 바람이 분다 – 은행업 사이클의 개선

은행업은 장기간 업황 사이클이 비우호적이었다. 코로나19까지는 초저금리가 지속되었고, 코로나19 종료 직후는 FED의 Exit 전략과 러-우 전쟁까지 맞물리며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동반되었고, 이는 국내 금융권의 입장에서 부동산 금융의 부실화와 자산건전성 악화, 양질의 대출 수요 위축 등 실적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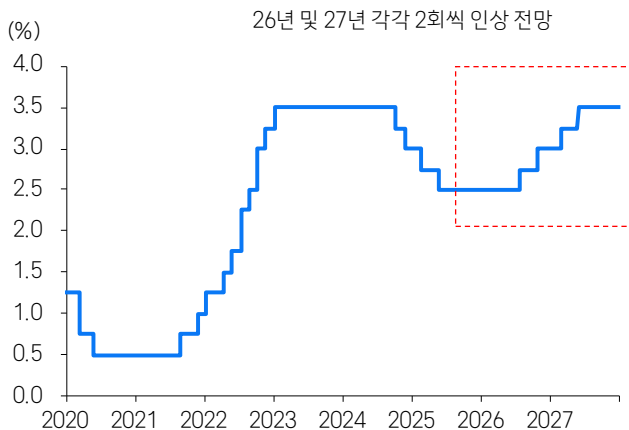
하지만, 올해 들어 이러한 은행업 사이클은 점차 개선세로 돌아서고 있다.

1. 금리 인상 사이클 – NIM 개선 사이클 기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당사 economist는 올해와 내년 각각 2회씩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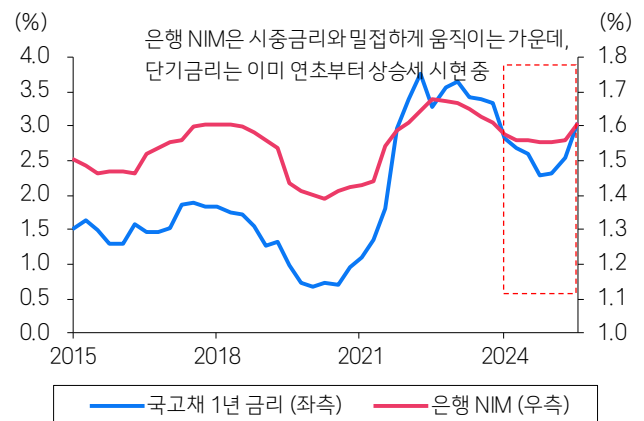
물론, 은행의 대출 및 수신 금리가 연동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은행 NIM에 즉각적인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의 기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의 전환이 은행의 NIM 개선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한다. 실제로 과거 시중금리 상승기에 은행의 NIM 또한 개선 사이클을 보였던 바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ilise, 삼성증권 추정

국고채 1년물 금리 vs 은행 NIM



참고: NIM은 4대 은행 평균

자료: Quantilise, FIS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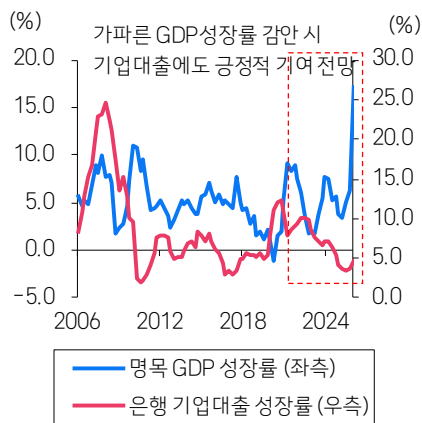
2. 대출 성장률 – 기업대출 중심 상승 사이클 시작

은행의 대출 성장률 또한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 사이클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생산적 금융 강화로 인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2) 반도체 기업 중심 급격한 실적 개선과 이들의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올해 1Q 대기업 대출 중심에서 점차 중소기업으로 낙수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명목 GDP 성장률의 가파른 상승 이후 내수 부문의 개선에도 초점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일차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급여 상승은 물론, 생산 및 투자 확대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견인하며 가계 소득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인프라 등의 투자 확대에 활용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여파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계의 내수 소비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지난 수 년간 어려움을 겪어 왔던 자영업자 등의 영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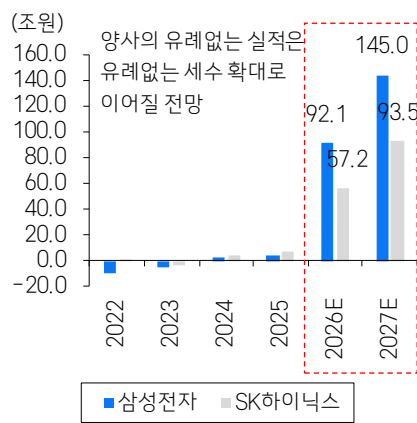
이와 같은 내수 경기 회복은 은행 입장에서 양질의 대출 수요 증가를 시사한다. 대출 수요처가 일부 수출 기업 관련 기업에서 내수 관련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음은 물론, 자영업자 대출 환경도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 주체들의 유동성 환경 개선은 은행 입장에서 대손 리스크의 축소를 시사하는 만큼, 대출 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명목 GDP 성장률 vs
은행 기업대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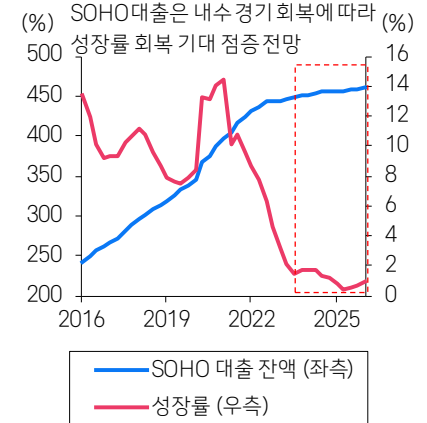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
법인세 납부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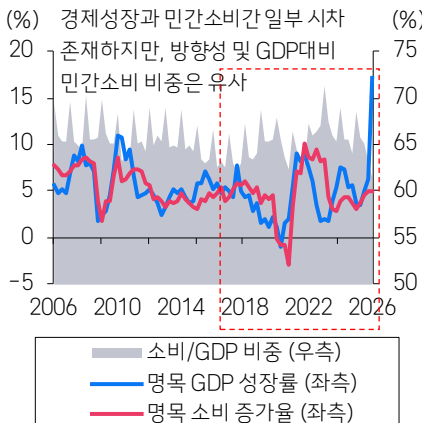
참고: 26년 및 27년 법인세는 당사 추정 기준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추정

은행 SOHO대출 vs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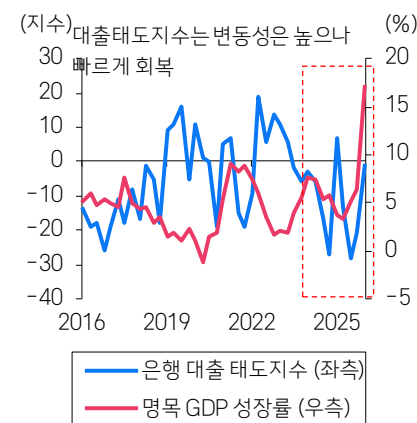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명목 GDP 성장률 vs 명목 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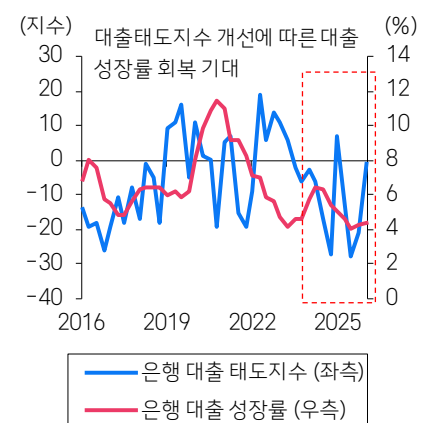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은행 대출 태도지수 vs
명목 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은행 대출 태도지수 vs 은행 대출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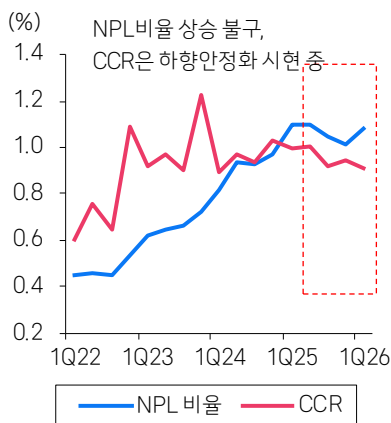
3. 자산건전성 – 개선사이클 재진입 기대

상반기 중 악화 추세를 보였던 자산건전성 지표는 점차 개선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1) 은행의 대출 성장률 회복으로 대변되는 유동성 공급 강화와 2) 수출 기업 중심 실적 개선과 생산적 금융 강화에 따른 투자 확대에 기반한 낙수효과 확대, 3) 내수 소비 반등 기대 등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은행들의 보수적 자산건전성 관리에 따른 추가 부실 부담 완화에도 초점이 필요하다. 1) 은행들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금융 관련 거액의 총당금 적립과 손실 인식 등 부담 완화 노력을 기울여 왔고, 2) 위험 산업 및 기업들에 대해서는 담보 보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손실 리스크를 축소해 왔으며, 3) 정부 또한 부동산 PF와 석유화학 업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잠재적 부실 축소 혹은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1Q26 중 은행들의 Credit cost는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세를 시현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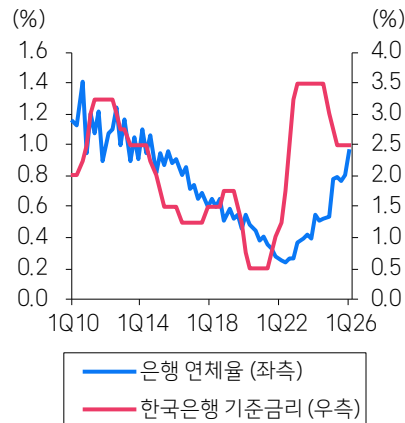
물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의 전환에 따른 건전성 우려가 부각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효과에 보다 초점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간 은행의 연체율은 경제성장률보다는 금리와 더 밀접한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1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구간에서 은행의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금변은 금리 인상 구간에서도 연체율은 점차 개선될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데, 1) 금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고, 2) 지난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들은 수 년간에 걸쳐 위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손실 인식을 이미 이행했으며, 3) 올해 1Q 중 드러난 급격한 경제 성장이 금리 인상 효과보다도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은행 NPL 비율 vs CC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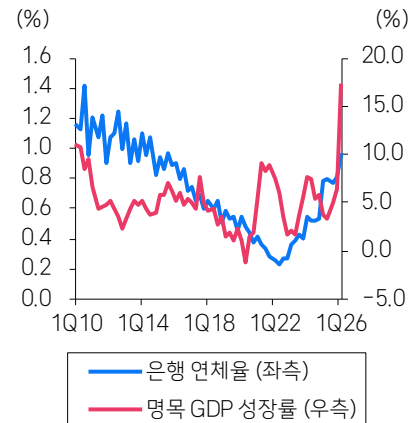
참고: 커버리지 은행 그룹 연결 기준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 연체율 vs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FISIS, 삼성증권

은행 연체율 vs 명목 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FISIS, 삼성증권

은행 당기순이익의 견조한 개선세는 올해 보다 가시화 전망

이와 같은 사이클 개선은 은행 실적 개선 폭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사는 올해 은행업종의 이익 규모를 22.9조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전년대비 14.0% 증가한 수준이며, 내년에도 은행들의 실적 개선세는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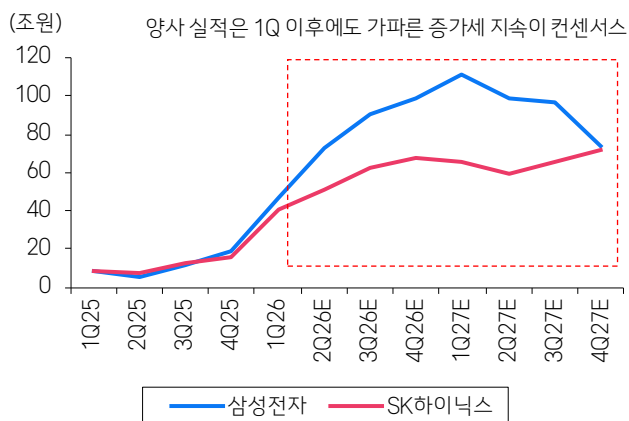
은행별 연간 이익 추이 및 전망

(십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E	YoY (%)	2027E	YoY (%)
KB금융	3,468.5	4,409.6	4,153.0	4,594.8	5,078.2	5,833.2	6,755.7	15.8	7,302.3	8.1
신한지주	3,414.6	4,019.3	4,665.7	4,368.0	4,450.2	4,971.6	5,804.3	16.7	6,275.4	8.1
하나금융	2,637.2	3,526.1	3,570.6	3,421.7	3,738.9	4,002.9	4,628.3	15.6	4,963.4	7.2
기업은행	1,535.7	2,412.5	2,667.7	2,669.7	2,644.5	2,711.1	2,833.1	4.5	2,906.4	2.6
BNK금융	519.4	791.0	785.0	639.8	728.6	815.0	855.0	4.9	960.5	12.3
IM금융	342.2	503.1	410.5	387.8	214.9	443.9	523.3	17.9	587.7	12.3
JB금융	363.5	506.6	601.0	586.0	677.5	710.4	730.2	2.8	803.2	10.0
카카오뱅크	131.0	204.1	263.1	354.9	440.1	480.3	617.7	28.6	692.8	12.2
케이뱅크	(105.4)	22.5	83.6	12.8	132.6	112.7	144.2	28.0	214.1	48.4
합계	12,306.7	16,394.6	17,200.1	17,035.6	18,105.4	20,080.9	22,891.9	14.0	24,705.6	7.9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추정

이는 현재 기업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고, 은행의 업황 사이클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며, 대형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자본력을 활용하여 비은행 부문 및 해외 영업 강화 등 구조적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이익은 내년에도 견조한 개선세를 보이며 25년 GDP대비 33%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컨센서스인데, 이러한 변화에 기반한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 가능성에 보다 초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 실적 및 컨센서스



참고: 1Q26 이후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vs 2025년 GDP

(조원)	2024	2025	2026E	2027E
삼성전자	32.7	43.6	363.1	497.1
SK하이닉스	23.5	47.2	264.0	382.7
합계	56.2	90.8	627.2	879.8
2025년 GDP 대비 (%)		3.4	23.4	32.9

참고: 26E, 27E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자료: 각 사, Fnguide, 삼성증권

ROE는 10%를 넘어 2. 증권사의 가파른 실적 개선 – 그룹 연결 ROE의 레벨업 견인 기대

금융그룹 내 비은행 이익기여도 상승세 지속 – KB금융은 40% 상회

은행계 금융그룹의 구조 변화에도 초점이 필요하다. 과거 국내 금융그룹은 은행이 대부분의 이익 비중을 차지했었다. 2018년 기준으로 4대 금융그룹의 비은행 이익기여도는 총계 기준 23.5%를 기록하였다. 다만, 미국 은행들과 같이 카드사 비즈니스를 은행으로 포함해서 볼 경우, 실질적인 비은행 부문 이익기여도는 14.4%까지 낮아진다. 즉, 서구권 은행들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은행계 금융그룹의 대부분 이익은 은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은행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비은행 강화에 나섰고, 이에 따른 성과는 점차 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비록 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금융 관련 손실 부담이 25년 실적까지 부담으로 작용하였지만, 1Q26 기준 4대 금융그룹들의 비은행 이익기여도는 평균 31.9%까지 상승하였고, 카드를 제외한 비은행 부문 이익기여도 또한 26.2%를 기록하였다. 특히, 비은행 부문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KB금융은 43.4%를 기록하였다.

4대 금융그룹 비은행 이익 기여도 추이

(조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Q26
은행	8.7	8.4	7.8	10.0	12.0	12.3	13.4	14.0	3.9
비은행	2.7	3.0	3.5	5.6	4.6	3.6	4.3	4.7	1.8
총계	11.3	11.4	11.3	15.6	16.7	16.0	17.6	18.7	5.7
비은행 이익기여도 (%)	23.5	25.9	31.4	35.7	27.8	22.9	24.2	25.1	31.9
카드사	1.0	1.0	1.2	1.5	1.4	1.3	1.3	1.2	0.3
카드사 제외 비은행	1.6	2.0	2.3	4.0	3.2	2.4	2.9	3.5	1.5
카드사 제외 비은행 이익기여도 (%)	14.4	17.2	20.7	25.9	19.3	15.0	16.6	18.8	26.2

자료: 각 사, 삼성증권

4대 금융그룹별 비은행 이익기여도 (분기별)

(십억 원, %)		1Q23	2Q23	3Q23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KB금융	은행	931.5	927.0	996.9	406.1	389.5	1,116.4	1,112.0	633.9	1,026.4	1,161.2	1,176.9	487.7	1,101.0
	비은행	656.5	624.2	432.5	(91.8)	742.1	680.2	609.1	131.0	747.2	629.8	626.8	255.2	845.4
	이익기여도	41.3	40.2	30.3	(29.2)	65.6	37.9	35.4	17.1	42.1	35.2	34.8	34.4	43.4
신한지주	은행	934.0	753.1	921.9	462.6	931.9	1,126.2	1,051.7	593.5	1,130.3	1,142.6	1,092.4	420.0	1,160.3
	비은행	543.5	582.1	388.9	145.4	493.3	422.4	428.9	(163.9)	462.8	499.5	457.9	155.5	612.3
	이익기여도	36.8	43.6	29.7	23.9	34.6	27.3	29.0	(38.2)	29.1	30.4	29.5	27.0	34.5
하나금융	은행	970.7	868.3	927.4	710.2	843.2	907.7	1,029.9	575.6	992.9	1,092.2	1,048.2	614.2	1,104.2
	비은행	198.2	114.3	99.9	(232.6)	244.7	182.6	159.5	48.9	195.6	93.3	186.3	48.9	244.0
	이익기여도	17.0	11.6	9.7	(48.7)	22.5	16.7	13.4	7.8	16.5	7.9	15.1	7.4	18.1
우리금융	은행	861.7	610.3	817.8	215.8	789.5	884.0	850.8	515.0	634.1	923.6	735.6	296.3	531.2
	비은행	93.1	72.7	79.8	(59.1)	74.9	93.1	98.1	25.9	65.1	96.1	110.3	97.8	123.0
	이익기여도	9.8	10.6	8.9	(37.7)	8.7	9.5	10.3	4.8	9.3	9.4	13.0	24.8	18.8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계 증권사 - 과거와는 다른 이익 체력 증명 시작

특히, 최근 비은행 이익기여도 상승의 핵심은 증권사이다. JB금융을 제외한 국내 은행 혹은 은행계 금융 그룹이 모두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증권사들 또한 최근 증시 호조에 따른 수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3대 금융그룹 기준 은행계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Q26 0.7조원으로 103.7% y-y 성장하였으며, 이익 기여도 또한 같은 기간 8.0%에서 14.6%로 6.6%p 상승하였다.

은행계 증권사 이익 및 이익기여도 추이 (분기별)

(십억원, %)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 %py-y
KB	198.0	178.1	170.7	38.9	179.9	159.0	157.8	177.2	347.8	93.3
이익기여도	17.5	9.9	9.9	5.1	10.1	8.9	8.7	23.9	17.9	7.7
신한	75.7	131.5	41.7	(69.7)	107.9	151.0	100.5	22.3	288.4	167.4
이익기여도	5.3	8.5	2.8	(16.2)	6.8	9.2	6.5	3.9	16.3	9.5
하나	89.9	41.3	50.6	43.3	75.3	31.5	62.8	42.4	103.3	37.1
이익기여도	8.3	3.8	4.3	6.9	6.3	2.7	5.1	6.4	7.7	1.3
총계	363.6	350.8	263.0	12.6	363.1	341.5	321.1	241.8	739.4	103.7
이익기여도	10.0	7.9	6.0	0.7	8.0	7.4	7.0	12.2	14.6	6.6

참고: 3대 금융그룹 기준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계 증권사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히 높지만...

다만, 최근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계 증권사의 역량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구심은 크다. 이는 은행계 증권사들의 실적 추이를 보면 전업계 증권사대비 부족한 모습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1) 더딘 이익 성장 - 은행과 증권사의 상이한 Risk Appetite: 2011년을 기점으로 은행계와 전업계 증권사의 당기순이익 추이를 비교해보면 은행계 증권사 실적 개선 폭이 상당히 더디게 나타난다. 실제로 은행계 증권사 5개사의 합산 기준 이익은 25년 기준으로 11년대비 341%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업계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각각 858.6% 및 1,027.8%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규모의 경제 부재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리스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랐던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한다. 특히, 전업계 증권사들의 경우, 2010년대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자기자본 활용 증대와 PF금융, 퇴직연금, WM부문 강화 등 수익원 다각화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2) 코로나19 직후 실적 악화: 하나증권 및 중소형사들은 코로나19를 전후로 부동산 금융 투자에 따른 급격한 실적 악화를 보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초저금리 및 부동산 시장의 활황 속에서 은행계 증권사들은 부동산 금융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시장 초기 가파른 실적 개선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른 실적 차별화가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전업계 증권사들 또한 부동산 금융 관련 손실이 불가피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익원 다변화가 이뤄졌던 만큼, 이에 따른 영향이 이익에 드러나는 것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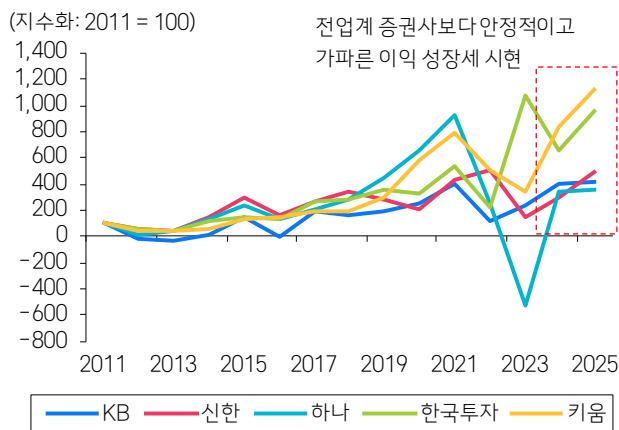
3) 여전히 취약한 MTS 기반: 최근 시장의 최대 화두인 개인 투자자와의 연결 고리는 MTS이다. 최근 약진을 보이고 있는 토스증권은 물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전업계 증권사들 모두 공통적으로 MTS MAU 우위가 근간이라 판단된다. 반면, 은행계 증권사는 KB증권만이 전업계 증권사와 유사한 수준의 MAU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사별 연간 이익 추이

(십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11년 대비 (%)
KB	146.9	-19.7	-43.8	17.6	220.5	-0.3	271.5	237.5	289.5	374.3	597.6	170.3	352.4	582.4	613.4	317.7
신한투자	73.2	38.1	29.3	112.5	217.1	123.3	200.5	245.7	208.7	149.0	313.6	369.6	108.3	215.3	359.0	390.3
하나	61.1	7.7	23.5	82.0	149.1	76.5	122.6	174.3	276.5	402.6	563.9	155.8	-318.7	212.8	215.3	252.1
BNK	4.0	1.8	-0.5	5.7	7.9	9.3	1.9	11.4	20.9	53.7	115.5	59.8	17.7	15.2	23.0	481.0
IM	5.9	3.6	-9.2	18.7	26.4	1.3	6.3	45.9	81.6	106.8	167.4	42.0	0.2	-163.2	73.0	1,137.0
은행계 소계	291.1	31.4	-0.6	236.4	621.0	210.1	602.8	714.7	877.2	1,086.3	1,758.1	797.5	159.8	862.6	1,283.7	341.0
한국투자	181.0	103.5	75.5	220.1	256.1	243.7	472.3	503.5	633.9	587.0	962.2	413.7	1,960.3	1,194.9	1,735.2	858.6
키움	97.5	40.8	42.4	56.3	135.0	140.5	183.3	190.8	286.0	566.0	772.5	493.1	338.4	815.1	1,099.4	1,027.8
합계	569.6	175.8	117.3	512.8	1,012.0	594.3	1,258.4	1,409.0	1,797.1	2,239.3	3,492.8	1,704.3	2,458.5	2,872.6	4,118.3	6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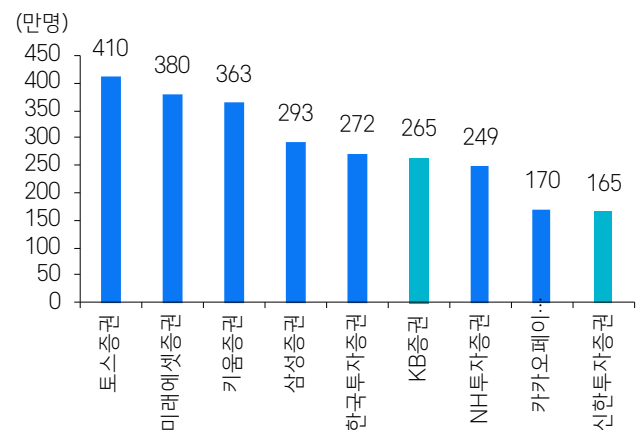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증권사별 연간 이익 추이 - 2011년 이익 대비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증권사별 MTS MAU



참고: 26년 4월 MAU 기준인 가운데, 토스증권은 25년 7월 기준

자료: 와이즈앱리테일, 언론 보도, 삼성증권

은행계 증권사의 전업계 증권사대비 차별화 포인트 1. 자본력 강화 역량

하지만, 증권업은 물론 금융업을 둘러싼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이에 은행계 증권사들이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에 보다 초점이 필요하다.

우선 금융 환경 및 규제의 변화로 증권사는 자본 규모에 따라 신규 산업은 물론 더 많은 레버리지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령, 1) 자본 규모 4조원 이상은 발행어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 발행이 가능하고, 2) 8조원 이상 달성 시에는 종합투자계좌인 IMA 라인선스 취득을 통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레버리지 확대가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은행계 증권사는 전업계 증권사대비 자본력 강화 관점에서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전업계 증권사의 경우, 자본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이익을 축적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주환원 강화 추세 속에서 이익 축적 속도는 다소 더딜 여지가 크고, 상장된 전업계 증권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반면, 은행계 증권사는 대부분 금융지주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만큼, 1) 주주환원 강화 추세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어 이익 축적 속도가 빠를 수 있는 것은 물론, 2) 지주사가 자회사간 Capital Re-allocation이나 부채 조달을 통해 증권 자회사에 유상증자를 단행함으로써 자본력을 단기간 내에 강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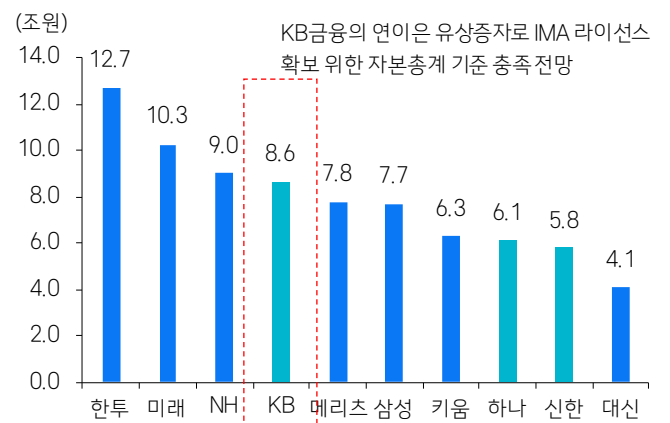
실제로, 4대 금융그룹은 유상증자를 통해 이들 라이선스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 KB금융은 KB증권에 두 차례에 걸쳐 1.7조원의 유상증자를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28년 IMA 라이선스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선스 관련 제도 개요

단계별 최소 자기자본 규모	허용 업무 및 특징	종투사 지정 현황 (26년 6월 기준)
3조원	- 기업 신용공여: 기업에 대한 대출, 어음(CP 제외) 할인 및 매입 - 전담중개(PBS): 헤지펀드 등 대상 미래, 한투, NH, KB, 삼성, 증권대차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내부주문 집행: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다자간 장외매매	미래, 한투, NH, KB, 키움, 대신
4조원	- 발행어음: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 (단기금융업 인가 필요)	미래, 한투, NH, KB, 키움
8조원	- 종합투자계좌(IMA):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 추구 - 운용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어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 가능 (예금 보호 대상 X)	미래, 한투, NH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증권사별 자본총계 Top 10 (1Q2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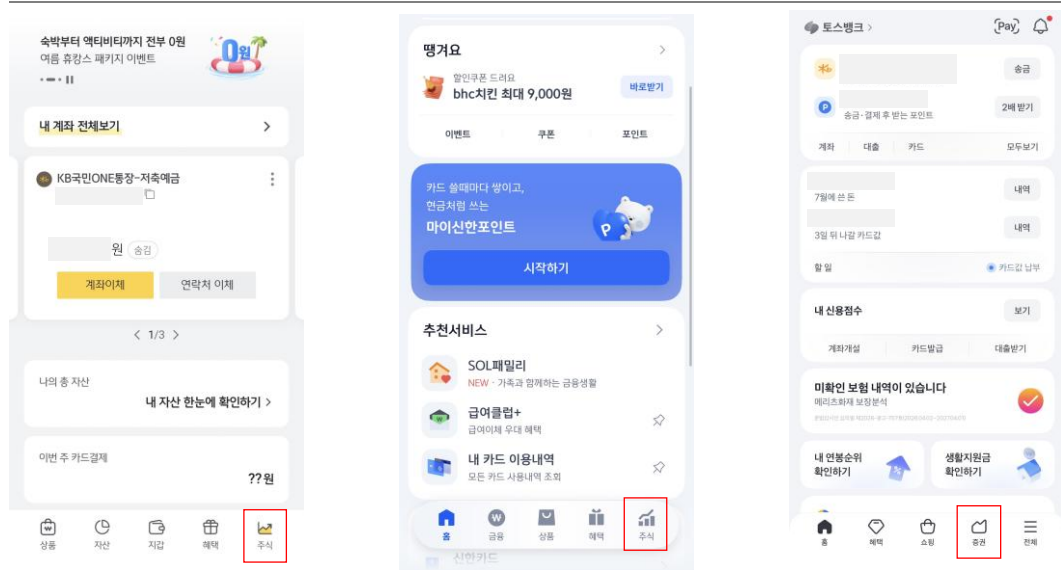
참고: KB금융의 KB증권에 대한 두 차례 유상증자 중 6월 결의 1조원 반영 기준
자료: FISIS, 삼성증권

은행계 증권사의 전업계 증권사대비 차별화 포인트 2. 그룹 고객 기반 활용 가능성

은행계 증권사의 또 다른 차별화된 포인트로는 그룹 고객 기반의 활용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최근 머니무브가 대두되며 증권사들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Lock-in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계 증권사는 다소 보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이미 금융그룹 내, 특히 은행이 보유한 고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취하고 있다. 참고로, MAU 기준 KB, 신한, 하나은행이 보유한 고객 수는 각각 1,400~1,700만명으로 대형 증권사 보유 고객 270~410만명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은행계 증권사는 잠재 고객 유치 역량 측면에서 우위를 살릴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1) 슈퍼앱 활용 - 은행과 증권 자회사간 칸막이 철폐 시도: 3대 금융지주는 금융그룹 내 계열사들의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모아 제공하고 있다. 은행 앱에서 주식 투자 기능도 접할 수 있도록 하단에 주식 거래 관련 탭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신한금융은 기존의 통합 플랫폼을 개선한 슈퍼 SOL을 출시하며 SOL Link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즉, 하이브리드 계좌를 통해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주식 매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증권간 칸막이를 없애고, 은행 고객이 증권 고객으로 손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 어플 및 토스 어플 화면 내 주식(증권) 탭 보유



참고: 왼쪽부터 KB스타뱅킹, 신한SOL, 토스 앱 순
자료: 각 사 어플 화면 캡처

2) 오프라인 점포 활용 - HNW 고객 유치 강화: 시중은행들은 HNW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1) 은행과 증권 점포를 물리적으로 합친 복합 점포를 확대하고, 2) HNW 고객을 위한 PB센터를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1) 고액 자산가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2) 예적금 및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접점을 확보한 기존의 고객들이 증권 자회사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기업 여신 고객 기반 활용: 은행이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은 기업 여신이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1) 기업 고객과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확보하고, 2)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고객 기반을 확대해온 가운데, 3) 최근에는 보유 증권사를 활용하여 기업의 가업 승계는 물론, 인수 합병 등 다양한 기업 금융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시너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은행별 NHW 고객 점포 개요

은행	대표 브랜드	자산 기준	초고액 브랜드	초고액 기준	점포 수
KB	골드앤와이즈 (일반 3억 ↑, 스타PB5억 ↑)	3억원~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 (10억/30억 ↑)	30억원 ↑	PB센터 약 21~23개, 더퍼스트 4곳 (압구정·신사·반포·도곡)
신한	PWM (준자산가 1억~, 1억원~ 고자산가 10억~)	1억원~	PWM 패밀리오피스 / PIB	100억원 ↑	WM센터 약 26개
하나	클럽원 (Club1) 30억 ↑	30억원 ↑	더넥스트 패밀리 오피스 / 패밀리 오피스&트러스트	300억원 ↑	클럽원 3곳 (삼성·한남·도곡) 등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정리

은행별 복합 영업점포 현황

은행	특징
KB	- 은행 + 증권 복합 점포: 강남스타·명동스타·목동·삼성동·서초·역삼·이촌·잠실롯데·청담스타 등 9곳 - KB GOLD&WISE the FIRST: 도곡·반포·압구정 등 3개 센터
신한	- 고객 자산가 전용 통합 브랜드 '신한 Premier' 산하 복합채널 전국 25곳으로 확대 - PIB강남센터 및 패밀리오피스 반포·청담·서울 등 4곳 특화 거점으로 운영
하나	신설된 지속성장부문 산하 리테일·WM·자본시장 본부 배치하여 계열사 간 연계 시너지 강화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정리

은행계 증권사의 전업계 증권사대비 차별화 포인트 3. 그룹 내 시너지 – 구조화 금융 제공 역량에 주목

은행과의 영업 시너지 창출 역량도 은행계 증권사가 지닌 차별화 포인트이다. 특히, 생산적 금융 및 모험 자본 활성화 등이 금융업의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1) 증권사의 Deal sourcing 역량과 2) 은행의 유동성 공급 역량은 물론, 3) 금융그룹 내 보험, 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구조화 금융 역량의 조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일부 대형 금융그룹의 IB Deal 사례를 보면, 은행계 증권사가 딜 구조를 마련하고, 같은 계열의 은행 및 기타 금융사들이 자금을 투여하는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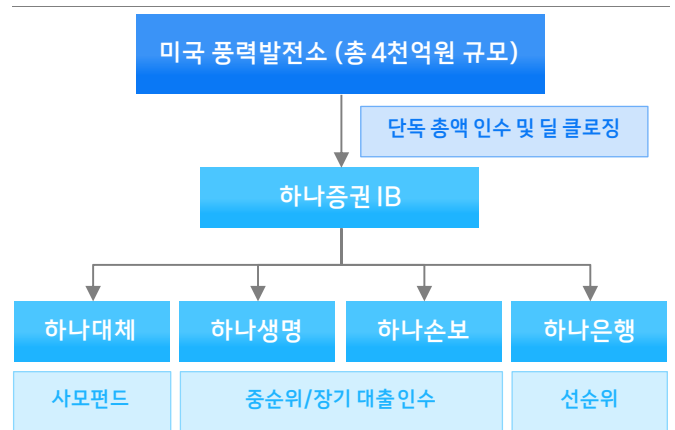
은행계 금융그룹 자회사별 자본 규모 비교

(조원)	KB	신한	하나	우리	BNK	iM	JB
은행	39.1	37.7	36.1	30.7	9.4	5.4	4.4
증권	7.9	5.9	6.1	1.2	1.2	1.1	-
생보	2.9	6.5	0.5	1.8	-	0.3	-
손보	5.9	0.2	0.6	-	-	-	-
캐피탈	2.6	2.3	2.8	1.8	1.5	0.9	1.9

참고: 1Q26 기준/ 회색 음영은 자본 규모 1조원 이상 자회사

자료: 각 사, 삼성증권

하나금융의 미국 풍력 발전소 IB deal 사례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증권사 실적 개선이 그룹 연결 기준 ROE의 레벨업 견인

올해 은행계 금융그룹 실적의 특이 사항 중 하나는 증권 자회사의 그룹 ROE 개선 견인이 될 전망이다. 1Q 중 3대 금융그룹을 기준으로 은행계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작년 연간 이익의 58.3% 수준까지 늘어났고, 이에 1Q 기준 이들 증권사의 당기순이익 기여도는 6.6%까지 상승하였다. 더 나아가, 2Q 중 증시 거래대금 증가를 감안하면, 이들 증권사의 이익은 2Q에도 가파른 개선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수적으로 올해 연간 이익을 1Q 이익의 3.5배로 (2Q 및 3Q는 1Q와 동일, 4Q는 연말 효과로 평균기의 50%로 단순 가정) 가정하더라도 올해 증권사 연간 이익은 전년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 가능하다. 이 경우, 증권사의 연간 이익 기여도는 2025년 이익 기준 16.4%로 전년대비 8.4%p 상승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작년 말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ROE는 0.8%p 추가 개선되는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가령, KB금융의 경우, 증권사 실적 개선만으로 작년 연간 그룹 연결 기준 ROE 10.9%에서 올해 연간 12%에 근접하는 ROE 창출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는 KB금융에 있어 장기간 PBR 상단으로 작용하였던 1.0배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증권사 이익 성장에 따른 이익 기여도 제고 Sensitivity Test

(십억원, %)	1Q26	2025A	1Q26 vs 25A (%)	2025A 그룹 순이익	25A 기준 증권 vs 그룹	1Q26 x 3.5	vs 2025A 그룹 (%)	이익기여도 차이 (%p)	2025A 연결 자본총 계	ROE 개선 효과 (%p)
KB	347.8	673.9	51.6	6,111.2	11.0	1,217.3	19.9	8.9	60,830.0	0.9
신한	288.4	381.6	75.6	5,360.9	7.1	1,009.3	18.8	11.7	60,372.3	1.0
하나	103.3	212.0	48.7	4,271.6	5.0	361.4	8.5	3.5	45,645.6	0.3
총계	739.4	1,267.5	58.3	15,743.7	8.1	2,588.0	16.4	8.4	166,847.9	0.8

참고: 연간 그룹 이익은 자회사 합계 기준

자료: 각 사, 삼성증권

ROE는 10%를 넘어 3. 금융의 디지털화 – 은행 ROE 구조적 상승으로

글로벌 은행들의 ROE 가이드선 상향 추세에 주목 필요

매년 초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ROE 가이드선을 제시한다. 1) 미국 은행들은 해당 연도의 ROE는 물론 이 자이익과 카드 충당금 적립률 가이드선을, 2) 유럽 은행들은 이에 더해 3년 후까지의 중장기 ROE 가이드선을 명문화된 IR 자료를 통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공표하고, 이에 대한 Q&A 세션을 갖는다.

올해 초 글로벌 은행들은 ROE 가이드선을 지난 해보다도 더욱 높게 설정하였다. 1) Citigroup은 작년 7.7%대비 2~3%p 상승한 10~11%를 제시함은 물론, 28년까지 13%를 목표로 제시하였고, 2) Bank of America는 중장기 목표로 작년 14.2%대비 높은 16~18%를 공표하였다. 3) 유럽은행의 대표격인 BBVA와 Banco Santander는 이미 ROTE가 25년 중 15%를 넘어선 가운데, 28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로 20~22%를 제시하였다.

주요 미국 및 유럽은행의 ROTCE (or ROTE) 목표 가이드선 비교

은행	2025A	2026E 목표	중장기 목표	비고
ROTCE				
JPMorgan Chase	20.0%	17.0%	17.0%	Through-the-cycle
Bank of America	14.2%		16~18%	향후 3~5년
Wells Fargo	15.0%		17~18%	Medium-term
Citigroup	7.7%	10~11%	14~15%	2029~2031
ROTE				
BBVA	19.3%	20.0%	22.0%	2025~28 평균
Banco Santander	16.3%		20.0%	2028년
Unicredit	19.3%	20% 이상	23% 이상	2028년
ING	13.6%	14% 이상	15% 이상	2027년

참고: 미국 은행들은 ROTCE를, 유럽계 은행들은 ROTE를 기준으로 제시

자료: 각 사, 삼성증권

글로벌 은행 ROE 개선 가이드선의 핵심은 이자이익, 그리고...

글로벌 은행들의 ROE 개선 가이드선에 있어 핵심은 일차적으로 이자이익 사이클 개선이다. 연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던 만큼, 이들 은행들은 NIM보다는 대출 수요 확대에 따른 볼륨 성장이 이자이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로, 다수의 미국 및 유럽 주요 은행들이 올해 이자이익 성장률 가이드선으로 높은 한자릿수를 제시하였다.

미국 주요 은행 NII 추이 및 가이드선

(십억 달러)	25년 NII	24년 NII	YoY (%)	26년 가이드선	YoY (%)
JP Morgan	95.4	92.6	3.1	103.0	7.9
Bank of America	60.1	56.1	7.2	64.3	7.0
Citigroup	59.8	54.1	10.5	63.4	6.0
Wells Fargo	47.5	47.7	(0.4)	50.0	5.3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정리

유럽 주요 은행 NII 추이 및 가이드선

(십억 유로)	24년 NII	2025년 NII	YoY (%)	26년 가이드선
Santander	46.0	43.8	(4.7)	Mid-single digit
Unicredit	14.8	14.7	(0.8)	3년간 5% CAGR
BBVA	25.3	26.3	4.0	Low-to-mid single digit
ING	15.1	14.7	(2.7)	(약 11.5% y-y)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정리

디지털 접목에 따른 Operating Leverage 확대 – 수익성 개선으로 귀결

하지만, 이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디지털 접목을 통한 Operating leverage, 즉 영업 레버리지 확대였다. 실제로 Q&A 세션에서 다뤄진 이슈 중 하나가 주요 은행들의 operating leverage 개선 효과에 대한 부분이었다. 은행들은 대출성장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접목을 통한 프로세스 자동화로 자산 성장에 따른 수익 증가 속도가 판관비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만큼, 이익 성장 및 ROE 개선이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은행들은 Operating leverage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Bank of America는 26년 operating leverage 가이드선으로 200bp를 제시하였다.

주요 은행 영업 레버리지 효과 가이드선

(%)	BofA	Citi	Wells Fargo	PNC
이자이익 증가율	5~7	5~6	~5	~11
비이자비용 증가율	~4	~3	~2	~7
영업 레버리지 개선 효과	~2	positive	positiv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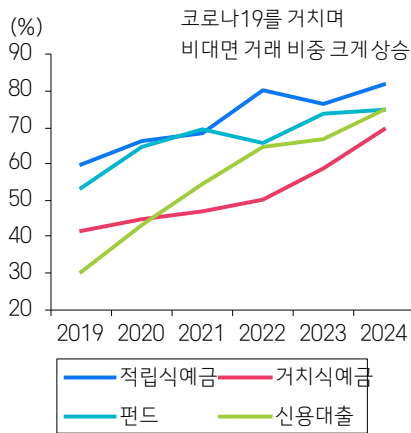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정리

국내 은행은 이미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상당한 진척 시현

국내 은행들의 업무 프로세스 상 디지털 전환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글로벌 은행들보다도 operating leverage 확대 역량은 전혀 뒤쳐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의 경우 1) 가계대출은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모두 온라인/모바일로 신청과 관리는 물론 대환대출까지 대부분의 업무가 사람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행태가 보편화되어 있고, 2) 개인 수신 부문도 계좌개설부터 상품 비교 및 가입까지 모두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3) 최근에는 제주은행이 더존비즈온과 협업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까지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과 심사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는 은행 업무에 있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디지털이 대체함으로써 이익 창출 기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대출이나 수신이 한 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과 더불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자산성장 속도도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디지털화를 통해 비용 절감은 물론 즉각적인 성장 속도 제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 여러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데, 1) 5대 시중은행 기준 주요 금융상품들의 비대면 가입비중이 코로나19를 거치며 70~80%대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2) 오프라인 점포와 임직원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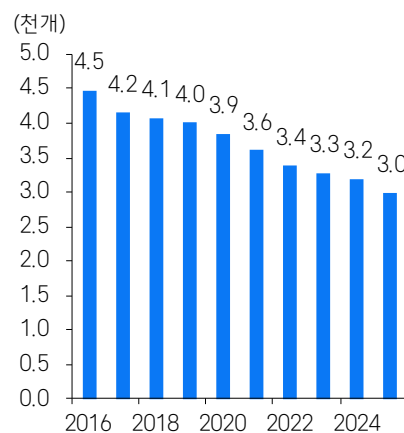
상품별 비대면 가입 비중 추이



참고: 5대 시중은행 단순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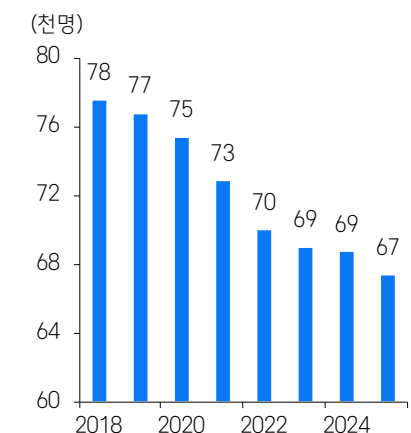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삼성증권

국내 은행 오프라인 점포 수 추이



자료: FISIS, 삼성증권

국내 은행 임직원 수 추이



자료: FISIS, 삼성증권

국내 은행의 디지털화 기반 Operating leverage 확대는 이미 진행형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미 국내 은행들의 Operating leverage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당사는 다소 보수적 관점에서 총영업이익이 아닌 이자이익을 기준으로 지표들을 산출하였다. 이는 1) 비이자이익의 경우 금리 변동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손익의 변동성이 높고, 2) 수수료이익의 경우 해외와 달리 은행은 카드 수수료 등과 같은 항목들이 비은행 자회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 은행 이자이익 증가율은 NIM이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판관비 증가율을 상회하며 투입 원가 증가대비 매출 증가율이 더 높음을 시사하고, 2) 총자산대비 판관비용률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ROA 및 ROE 관점에서 수익성 개선을 의미하며, 3) CIR과 유사한 개념의 이자이익대비 판관비 비율도 유사한 개선세를 보이며 실질적으로 그룹 CIR의 추세적 개선으로 귀결되고 있다.

참고로, 올해는 이와 같은 Operating leverage 개선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 이는 통상임금 반영과 교육세 인상 등 올해에만 국한되는 이례적 요인의 영향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의 지속 및 인력 효율화 등에 따른 구조적 개선은 지속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operating leverage 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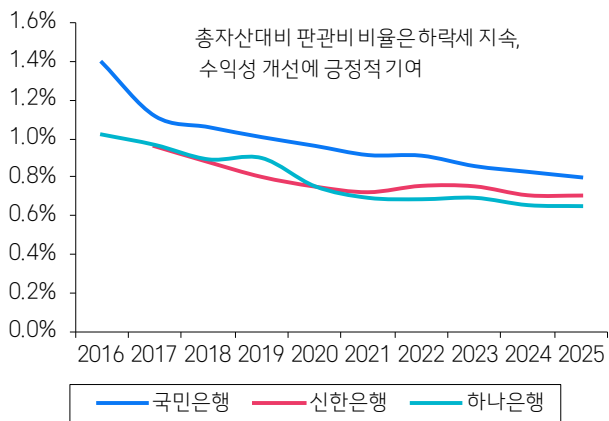
은행 Operating leverage 확대에 따른 은행의 ROE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그룹들의 경상적인 ROE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 금융그룹들의 ROE개선 폭이 제한적이라는 일각의 고정관념 이면에는 은행계 금융그룹 중 이익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은행의 ROE 한계가 자리한다. 하지만, 은행의 디지털화에 따른 Operating leverage를 기반으로 은행 ROE가 10%를 넘어 상승한다면, 이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일부 와해하는 것은 물론, 연결 기준 ROE의 개선에 따른 상승 여력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3대 은행 기준 이자이익 vs 판관비 증가율 추이

은행 /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민은행									
NII 증가율	11.7%	13.1%	4.3%	6.1%	14.4%	20.2%	6.2%	3.6%	4.2%
판관비 증가율	(14.1%)	2.8%	3.2%	8.1%	4.8%	6.7%	(3.8%)	2.5%	0.3%
NII 증가율 - 판관비 증가율	25.8%	10.3%	1.1%	(1.9%)	9.6%	13.5%	10.0%	1.1%	3.9%
신한은행									
NII 증가율		11.9%	5.1%	1.0%	11.5%	24.1%	2.4%	5.2%	3.8%
판관비 증가율		(1.8%)	2.6%	1.9%	4.9%	10.2%	3.0%	2.6%	7.0%
NII 증가율 - 판관비 증가율		13.7%	2.5%	(1.0%)	6.6%	13.9%	(0.6%)	2.6%	(3.2%)
하나은행									
NII 증가율	11.2%	10.0%	2.2%	(2.0%)	15.9%	23.7%	4.1%	(2.3%)	4.3%
판관비 증가율	(2.2%)	(2.1%)	9.4%	(10.2%)	(0.0%)	11.6%	3.9%	0.9%	3.8%
NII 증가율 - 판관비 증가율	13.4%	12.2%	(7.2%)	8.2%	15.9%	12.1%	0.1%	(3.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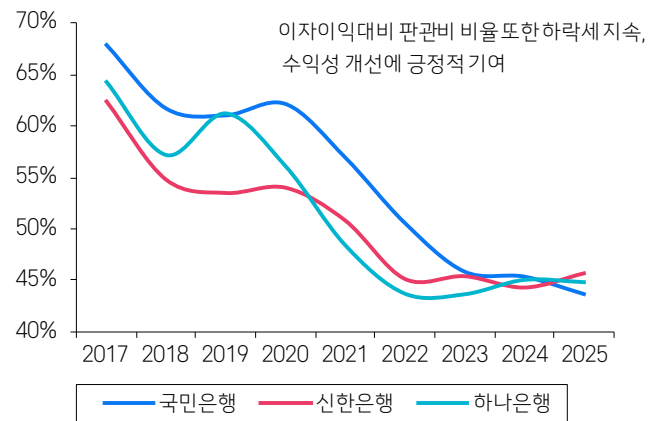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정리

3대 시중은행 판관비 / 총자산 추이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정리

3대 시중은행 판관비 / 이자이익 추이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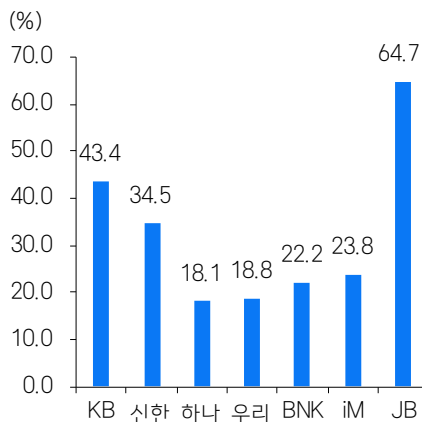
은행업종 - KB금융 중심 3대 금융지주에 초점

KB금융 - 펀더멘털 및 주주환원 우위 중심 은행업종 Valuation 상단 상향 견인 기대

은행업종 내에서는 KB금융이 Valuation 상단의 상향을 견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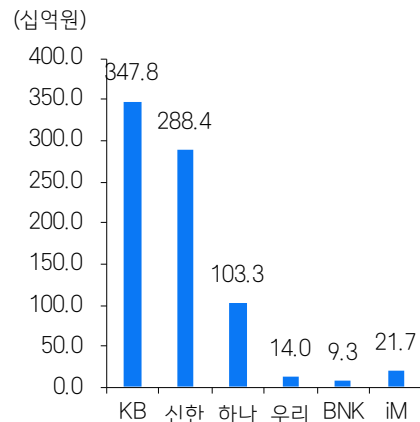
- 1) KB금융은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은행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가장 다변화되어 있는 가운데,
- 2) KB증권이 규모 및 업무 영역 측면 상 차별화된 실적 개선을 보이며 그룹 ROE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고,
- 3) 주주환원을 또한 업종 최고 수준을 이어가며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별 비은행 이익기여도 (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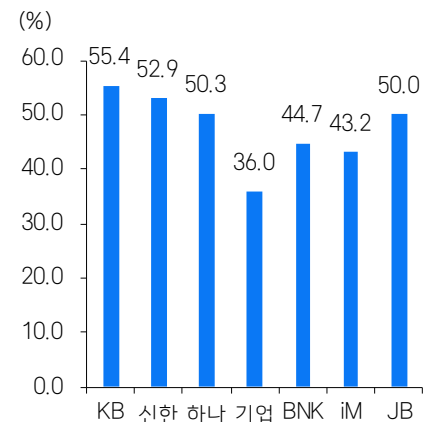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금융지주별 증권사 순이익 (1Q26)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계 금융지주별 주주환원율 (2026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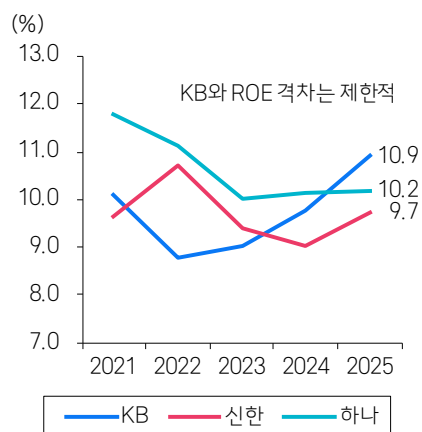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추정

신한지주 및 하나금융 – 실적 개선 유효한 가운데 Valuation gap 축소 여력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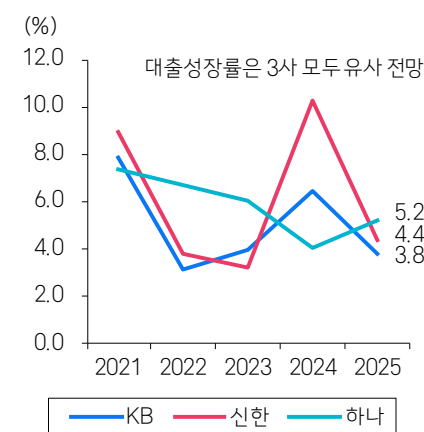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은 비은행은 물론 계열 증권사의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여전히 KB금융과의 격차는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계 금융그룹들은 증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의 PBR은 KB금융에 비해 각각 11.2% 및 23.8% 낮은 반면, ROE 격차는 제한적이며, 주주환원율 또한 50%를 넘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라는 관점에서 KB금융의 주가 상승은 이들 금융그룹 Valuation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3대 은행지주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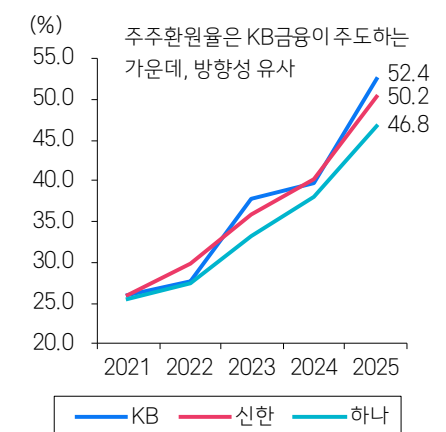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3대 은행 대출성장률 추이



자료: 각 사, 삼성증권

3대 은행지주 주주환원율 추이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지방은행계 금융그룹 – ROE대비 큰 할인율 + 차별화된 성장 및 ROE회복이 관건

일차적으로 지방은행계 금융그룹은 ROE대비 Valuation 할인율이 큰 만큼 Valuation은 매력적이다. JB금융은 상대적으로 PBR이 높지만, ROE가 26년 13.1%에 달할 전망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BNK금융과 iM금융 또한 26E PBR이 모두 0.5배로 ROE대비 할인율이 과도한 구간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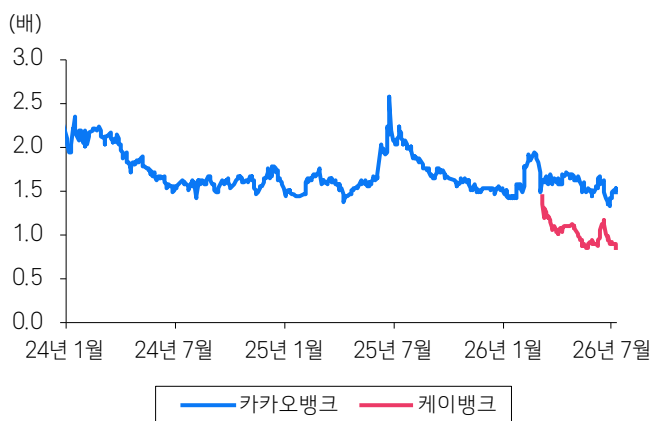
다만, 결국 이들 금융그룹이 적정 Valuation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외된 국면을 타파할 수 있을 정도의 플러스 알파 창출이 관건이다. 결국 실적을 통해 1) ROE 회복 속도의 확인과 2) 투자자들이 중소형사 투자에서 기대하는 차별화된 성장성, 그리고 3) 수익성 개선과 높은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속도감 있는 주주환원의 성장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터넷은행 – 개인사업자 부문 대출 확대 통한 차별화된 성장성 확인이 관건

인터넷은행은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대비 높은 Valuation에 거래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상태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1) 당초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낮은 플랫폼 부문 이익 기여도와 더불어 2)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속 인터넷은행들의 성장성 저하와 3) 이에 따른 자본 효율성 저하 및 시중은행보다도 낮은 ROE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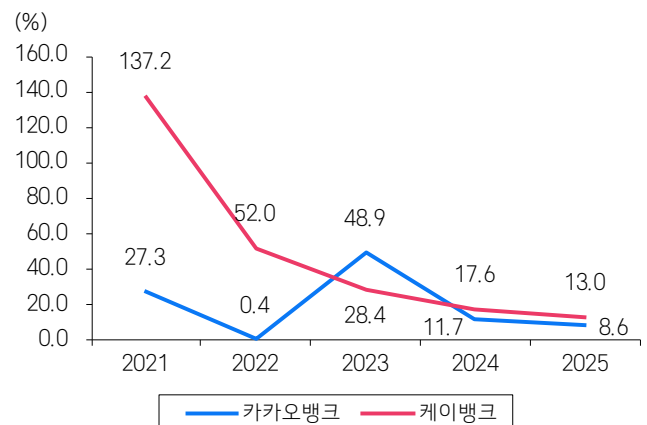
이는 역으로 이들 은행들이 재차 Valuation 프리미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출 성장률 회복이 최대 관건임을 시사한다. 플랫폼 부문의 이익 기여도 개선은 이자이익 증가 속도에 비해 더딜 여지가 크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 가계대출만으로 성장 차별화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에 인터넷 은행들은 단기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속도가, 중장기적으로는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가능성이 생긴 중소기업대출 성장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vs 케이뱅크 PBR 추이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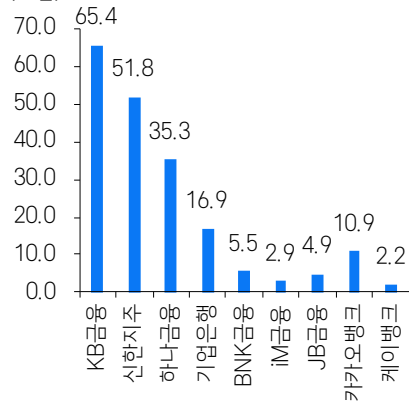
카카오뱅크 vs 케이뱅크 대출 성장률 추이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별 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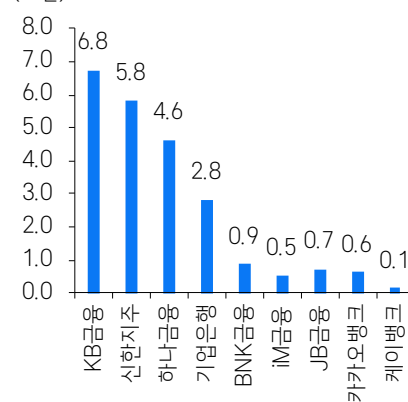
(조원)



참고: 7월 10일 종가 기준 /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은행별 26E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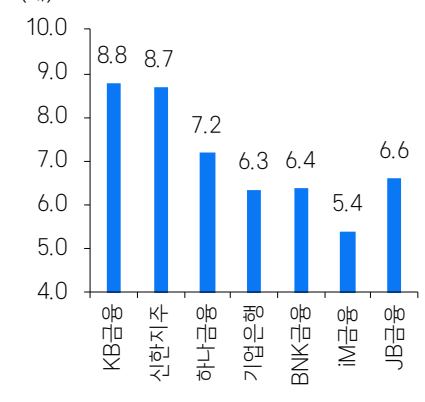
(조원)



자료: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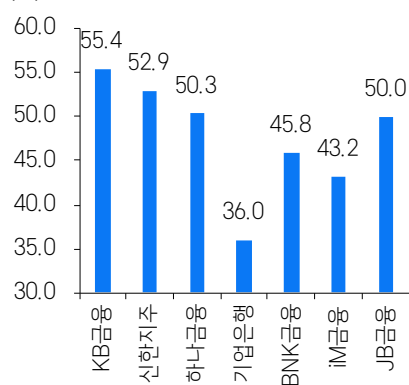
은행별 26E PER

(배)

참고: 7월 10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은행별 26E 주주환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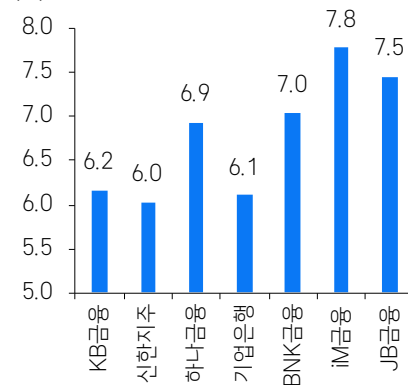
(%)



자료: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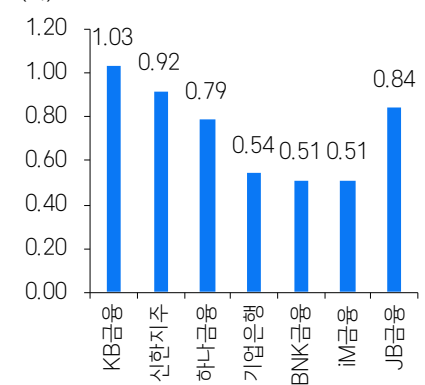
은행별 26E 주주환원 수익률

(%)

참고: 7월 10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은행별 26E PBR

(배)

참고: 7월 10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Valuation matrix

(십억원, 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은행계
종목코드	105560 KS	055550 KS	086790 KS	024110 KS	138930 KS	139130 KS	175330 KS	323410 KS	279570 KS	
투자의견	BUY	BUY	BUY	HOLD	BUY	BUY	HOLD	HOLD	BUY	OVERWEIGHT
주가 (원)	184,400	109,200	128,500	21,250	17,850	17,850	26,050	22,900	5,520	
목표주가 (원)	230,000	138,000	161,000	26,000	24,000	24,000	34,000	28,000	7,500	
상승여력 (%)	24.7	26.4	25.3	22.4	34.5	34.5	30.5	22.3	35.9	
목표 P/B (배)	1.33	1.18	1.04	0.67	0.69	0.68	1.04	1.76	1.09	
목표 P/E (배)	11.3	11.1	9.4	7.9	8.5	7.2	8.1	20.1	21.1	
시가총액 (조원)	60.7	50.9	33.6	16.7	5.6	2.9	4.9	10.5	2.2	187.9
PER (배)	25A	7.7	7.6	6.5	6.6	6.1	5.7	6.8	21.5	-
	26E	9.5	8.8	7.5	6.4	6.4	5.3	6.6	17.7	15.5
	27E	8.4	7.8	6.7	6.3	5.5	4.5	5.9	15.8	10.5
PBR (배)	25A	0.8	0.7	0.7	0.6	0.5	0.5	0.9	1.6	-
	26E	1.1	0.9	0.8	0.5	0.5	0.5	0.8	1.6	0.8
	27E	1.0	0.8	0.8	0.5	0.5	0.5	0.8	1.5	0.7
EPS (원)	25A	16,267	10,151	14,382	3,184	2,592	2,739	3,757	1,007	300
	26E	19,509	12,380	17,046	3,302	2,811	3,354	3,938	1,295	356
	27E	21,918	14,024	19,038	3,364	3,272	3,956	4,433	1,452	528
BPS (원)	25A	151,973	105,947	144,244	37,049	32,738	32,350	28,532	13,700	5,781
	26E	165,581	117,027	155,468	38,638	34,959	35,327	30,880	14,138	6,855
	27E	180,949	128,676	170,753	40,650	37,843	38,747	33,817	15,510	7,383
ROA (%)	25A	0.8	0.7	0.6	0.6	0.9	0.5	1.0	0.7	0.4
	26E	0.8	0.7	0.7	0.6	0.9	0.5	1.0	0.8	0.4
	27E	0.9	0.7	0.7	0.5	1.0	0.5	1.0	0.8	0.6
ROE (%)	25A	10.9	9.7	10.2	8.9	8.0	8.4	13.6	7.2	5.4
	26E	12.1	10.9	11.2	8.7	8.2	9.5	13.1	8.9	5.8
	27E	12.4	11.2	11.4	8.5	8.8	10.2	13.6	9.4	7.4
DPS (보통주, 원)	26E	4,626	2,960	4,600	1,184	830	840	1,311	650	-
배당수익률 (%)	26E	2.5	2.7	3.6	5.6	4.6	4.7	5.0	2.8	-
총 주주환원율 (%)	26E	55.4	52.9	50.3	36.0	45.8	43.2	50.0	50.0	-
주주환원 수익률 (%)	26E	6.2	6.0	6.9	6.1	7.0	7.8	7.5	2.9	-

참고: 7월 10일 종가 기준

자료: 각 사,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KB금융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현금및현금등가물	29,930	34,842	33,785	35,437	37,182
유가증권	218,720	229,307	247,377	260,479	274,364
대출채권	474,706	495,204	518,648	543,884	570,500
이자부자산	723,356	759,354	799,518	839,485	881,705
고정자산	10,516	10,553	5,299	5,562	5,839
기타자산	23,974	28,017	59,566	63,116	66,904
자산총계	757,847	797,924	864,384	908,162	954,447
예수금	429,357	451,749	479,801	504,568	530,713
차입금	68,077	70,728	74,432	78,840	83,558
사채	76,171	80,049	82,249	86,098	90,204
이자부부채	635,856	670,024	703,635	739,386	777,192
기타부채	62,175	67,070	97,480	102,555	108,218
부채총계	698,031	737,094	801,115	841,941	885,409
자본금	2,091	2,091	2,091	2,091	2,091
신종자본증권	5,083	4,359	3,940	3,940	3,940
자본잉여금	17,124	17,111	9,580	9,580	9,580
이익잉여금	34,808	38,334	48,523	51,476	54,292
자본조정	(1,713)	(2,379)	(2,160)	(2,160)	(2,16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97	(467)	(497)	(497)	(497)
소수주주지분	1,926	1,782	1,791	1,791	1,791
자본총계	59,815	60,830	63,268	66,221	69,037

자산건전성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고정이하여신/총여신	0.6	0.6	0.7	0.7	0.7
요주의이하여신/총여신	1.6	1.5	1.6	1.6	1.6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174.3	155.8	167.4	177.7	184.8
대손충당금/요주의이하여신	70.7	66.0	72.1	76.6	79.7
대손충당금/총여신	1.1	1.0	1.1	1.2	1.3
순상각/고정이하여신	44.1	67.6	30.1	28.6	27.2
순상각/총여신	0.3	0.4	0.2	0.2	0.2
대손충당금 적립액/총여신	0.44	0.49	0.41	0.39	0.36

주당 data

12월 31일 기준 (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EPS	13,593	16,267	19,509	21,918	23,998
주당장부가	140,598	151,973	165,581	180,949	197,459
주당 배당금 - 보통주	3,174	4,367	4,626	5,170	5,758
배당성향 (%)	23.6	27.1	24.0	24.0	24.4
주주환원율 (%)	39.8	52.4	55.4	59.6	63.3

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이자수익	30,491	29,156	29,358	31,110	32,646
이자비용	(17,665)	(16,083)	(15,553)	(16,396)	(17,418)
순이자이익	12,827	13,073	13,804	14,714	15,228
대손충당금	(2,044)	(2,363)	(2,098)	(2,077)	(2,010)
충당금적립후순이자수익	10,782	10,710	11,707	12,637	13,218
순수수료이익	3,850	4,098	5,586	5,741	5,937
기타비이자이익합계	352	774	63	50	67
총이익	14,984	15,582	17,356	18,428	19,222
판매비와관리비	(6,939)	(7,065)	(7,490)	(7,780)	(8,052)
영업이익	8,045	8,518	9,867	10,649	11,170
기타영업외이익	(1,060)	(335)	(423)	(428)	(43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985	8,183	9,443	10,221	10,738
법인세	1,957	2,342	2,588	2,811	2,953
당기순이익	5,029	5,841	6,855	7,410	7,784
소수주주지분	(50)	8	99	107	116
당기순이익(연결)	5,078	5,833	6,756	7,302	7,668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10,301	11,111	12,206	12,979	13,444

재무비율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ROAA	0.7	0.8	0.8	0.9	0.8
ROAE	9.8	10.9	12.1	12.4	12.4
대출금성장률 (원화기준)	6.4	3.8	5.1	5.1	5.1
예수금성장률 (원화기준)	7.1	4.5	5.8	5.1	5.1
자산성장률	6.2	3.9	7.8	4.7	4.7
대출금/예수금 (원화기준)	97.8	98.5	97.6	97.6	97.6
순이자마진*	1.78	1.74	1.78	1.78	1.74
예대금리차*	1.72	1.69	1.72	1.72	1.68
비용/이익	40.7	39.4	38.5	37.9	37.9
BIS 자기자본비율	16.4	16.2	18.6	18.6	18.6
Tier 1 자본비율	15.2	15.2	17.7	17.8	17.8
Tier 2 자본비율	1.3	1.0	0.9	0.8	0.8
보통주 자본비율	13.5	13.8	13.8	13.8	13.8
단순자기자본비율	7.9	7.6	7.3	7.3	7.2

참고: * 은행기준

자료: KB금융, 삼성증권 추정

12월 31일 기준	총전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주당장부가 (원)	P/E (배)	P/B (배)	ROA (%)	ROE (%)	CET-1 비율 (%)	배당수익률 (%)
2024	10,301	5,078	13,593	12.0	140,598	6.1	0.6	0.7	9.8	13.5	3.8
2025	11,111	5,833	16,267	19.7	151,973	7.7	0.8	0.8	10.9	13.8	3.5
2026E	12,206	6,756	19,509	19.9	165,581	9.5	1.1	0.8	12.1	13.8	2.5
2027E	12,979	7,302	21,918	12.3	180,949	8.4	1.0	0.9	12.4	13.8	2.8
2028E	13,444	7,668	23,998	9.5	197,459	7.7	0.9	0.8	12.4	13.8	3.1

자료: KB금융, 삼성증권 추정

신한지주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현금및현금등가물	40,689	40,407	42,018	43,704	45,470
유가증권	206,801	217,672	227,484	233,632	240,246
대출채권	450,560	465,488	493,229	517,671	543,792
이자부자산	698,050	723,567	762,660	794,829	829,215
고정자산	7,544	7,850	4,361	4,619	4,887
기타자산	34,170	54,597	71,607	74,340	77,183
자산총계	739,764	786,013	838,628	873,788	911,285
예수금	423,378	449,171	478,439	501,402	525,900
차입금	49,920	55,395	57,259	58,739	60,272
사채	94,027	93,279	89,528	91,815	94,198
이자부부채	619,713	649,909	674,931	702,162	731,080
기타부채	61,230	75,732	100,287	105,394	111,209
부채총계	680,943	725,641	775,218	807,555	842,289
자본금	2,970	2,970	2,970	2,970	2,970
신종자본증권	4,600	4,750	4,720	4,720	4,720
자본잉여금	12,095	12,099	2,233	2,233	2,233
이익잉여금	39,021	41,796	53,872	56,589	59,247
자본조정	(807)	(1,180)	(773)	(773)	(77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24)	(2,475)	(2,107)	(2,107)	(2,107)
소수주주지분	2,767	2,413	2,495	2,601	2,707
자본총계	58,821	60,372	63,410	66,233	68,997

자산건전성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고정이하여신/총여신	0.7	0.7	0.8	0.8	0.8
요주의이하여신/총여신	1.6	1.6	1.6	1.7	1.7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149.8	133.6	161.3	164.7	166.8
대손충당금/요주의이하여신	65.9	61.4	80.1	81.9	83.0
대손충당금/총여신	1.1	1.0	1.3	1.4	1.4
순상각/고정이하여신	56.6	72.8	7.6	38.7	36.2
순상각/총여신	1.1	1.0	1.3	1.4	1.4
대손충당금 적립액/총여신	0.46	0.46	0.46	0.42	0.39

주당 data

12월 31일 기준 (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EPS	8,816	10,151	12,380	14,024	15,320
주당장부가	99,328	105,947	117,027	128,676	140,523
주당 배당금 - 보통주	2,160	2,590	2,960	3,352	3,849
배당성향 (%)	24.5	25.1	23.6	24.0	25.3
주주환원율 (%)	40.3	50.2	52.9	56.7	59.5

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이자소득	29,209	27,989	29,030	30,519	32,003
이자비용	(17,807)	(16,294)	(16,509)	(17,297)	(18,275)
순이자이익	11,402	11,694	12,521	13,221	13,728
대손충당금	(1,960)	(2,049)	(2,181)	(2,058)	(2,023)
충당금적립후순이자소득	9,442	9,645	10,341	11,163	11,704
순수수료이익	2,715	2,921	3,911	4,132	4,325
기타비이자이익합계	418	859	429	237	86
총이익	12,575	13,426	14,680	15,532	16,116
판매비와관리비	(6,116)	(6,403)	(6,787)	(6,942)	(7,132)
영업이익	6,459	7,023	7,893	8,590	8,983
기타영업외이익	(430)	(94)	206	212	22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029	6,929	8,099	8,802	9,203
법인세	(1,471)	(1,844)	(2,189)	(2,421)	(2,531)
당기순이익	4,558	5,085	5,910	6,382	6,672
소수주주지분	(108)	(113)	(106)	(106)	(106)
당기순이익(연결)	4,450	4,972	5,804	6,275	6,566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8,572	9,257	10,178	10,720	11,070

재무비율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ROAA	0.6	0.7	0.7	0.7	0.7
ROAE	9.0	9.7	10.9	11.2	11.1
대출금성장률 (원화기준)	10.3	4.4	4.7	4.9	5.0
예수금성장률 (원화기준)	11.1	5.6	6.3	4.9	5.0
자산성장률	6.9	6.3	6.7	4.2	4.3
대출금/예수금 (원화기준)	118.2	118.3	117.4	117.4	117.4
순이자마진*	1.58	1.56	1.60	1.59	1.55
예대금리차*	1.88	1.77	1.78	1.78	1.74
비용/이익	41.7	41.3	41.3	40.6	40.9
BIS 자기자본비율	15.7	15.9	15.6	15.7	15.8
Tier 1 자본비율	14.7	15.0	14.7	14.8	14.9
Tier 2 자본비율	1.0	0.9	0.9	0.9	0.8
보통주 자본비율	13.0	13.4	13.3	13.4	13.5
단순자기자본비율	8.0	7.7	7.6	7.6	7.6

참고: * 은행기준

자료: 신한지주, 삼성증권 추정

12월 31일 기준	총전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주당장부가 (원)	P/E (배)	P/B (배)	ROA (%)	ROE (%)	CET-1 비율 (%)	배당수익률 (%)
2024	8,572	4,450	8,816	3.7	99,328	5.4	0.5	0.6	9.0	13.0	4.5
2025	9,257	4,972	10,151	15.1	105,947	7.6	0.7	0.7	9.7	13.4	3.4
2026E	10,178	5,804	12,380	22.0	117,027	8.8	0.9	0.7	10.9	13.3	2.7
2027E	10,720	6,275	14,024	13.3	128,676	7.8	0.8	0.7	11.2	13.4	3.1
2028E	11,070	6,566	15,320	9.2	140,523	7.1	0.8	0.7	11.1	13.5	3.5

자료: 신한지주, 삼성증권 추정

하나금융지주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현금및현금등가물	40,405	43,340	47,334	49,256	51,256
유가증권	151,450	153,140	166,263	178,297	191,484
대출채권	403,979	434,787	440,200	464,950	491,460
이자부자산	596,148	631,564	654,129	692,882	734,630
고정자산	11,503	12,673	13,227	13,764	14,323
기타자산	30,196	30,354	44,905	46,728	48,626
자산총계	637,848	674,591	712,261	753,375	797,579
예수금	390,531	409,840	416,360	438,045	461,112
차입금	47,064	51,619	53,338	55,503	57,757
사채	64,880	72,813	74,857	77,897	81,060
이자부부채	513,586	546,648	556,973	584,367	613,376
기타부채	80,685	82,297	105,618	114,001	123,264
부채총계	594,271	628,945	664,365	702,812	744,104
자본금	1,501	1,501	1,501	1,501	1,501
신종자본증권	4,140	4,270	4,270	4,270	4,270
자본잉여금	10,579	10,576	3,176	3,176	3,176
이익잉여금	27,640	29,691	39,432	41,744	43,964
자본조정	(325)	(549)	(645)	(645)	(64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34)	(909)	(830)	(830)	(830)
소수주주지분	876	1,066	992	1,347	2,039
자본총계	43,577	45,646	47,896	50,563	53,475

자산건전성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고정이하여신/총여신	0.6	0.7	0.4	0.4	0.4
요주의이하여신/총여신	2.1	2.1	1.4	1.4	1.4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119.8	100.3	210.6	211.1	211.4
대손충당금/요주의이하여신	35.0	33.5	69.1	69.4	69.5
대손충당금/총여신	0.7	0.7	0.9	0.9	0.9
순상각/고정이하여신	45.6	38.7	5.9	37.5	33.5
순상각/총여신	0.3	0.3	0.0	0.2	0.1
대손충당금 적립액/총여신	0.30	0.29	0.25	0.21	0.20

주당 data

12월 31일 기준 (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EPS	13,017	14,382	17,046	19,038	20,839
주당장부가	133,682	144,244	155,468	170,753	186,934
주당 배당금 - 보통주	3,400	4,105	4,600	5,250	6,030
배당성향 (%)	26.0	27.9	26.5	27.2	28.5
주주환원율 (%)	38.0	46.8	50.3	53.4	57.4

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이자소득	24,117	22,460	22,805	24,205	25,741
이자비용	(15,356)	(13,296)	(12,485)	(13,014)	(13,780)
순이자이익	8,761	9,163	10,319	11,191	11,960
대손충당금	(1,239)	(1,298)	(1,112)	(1,001)	(964)
충당금적립후순이자소득	7,522	7,865	9,207	10,190	10,996
순수수료이익	1,524	1,628	2,211	2,250	2,271
기타비이자이익합계	340	(426)	(445)	(217)	(67)
총이익	9,385	9,067	10,973	12,223	13,201
판매비와관리비	(4,530)	(4,688)	(4,941)	(5,113)	(5,293)
영업이익	4,855	4,380	6,032	7,110	7,908
기타영업외이익	197	108	255	257	263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052	4,488	6,287	7,367	8,171
법인세	1,284	1,422	1,710	2,026	2,247
당기순이익	3,769	3,066	4,577	5,341	5,924
소수주주지분	30	34	(52)	378	718
당기순이익(연결)	3,739	4,003	4,628	4,963	5,206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6,272	5,880	7,354	8,329	9,098

재무비율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ROAA	0.6	0.6	0.7	0.7	0.7
ROAE	10.1	10.2	11.2	11.4	11.3
대출금성장률 (원화기준)	4.0	4.9	5.1	5.7	5.8
예수금성장률 (원화기준)	3.9	6.2	3.3	5.2	5.3
자산성장률	7.8	5.8	5.6	5.8	5.9
대출금/예수금 (원화기준)	99.5	99.4	100.6	100.6	100.6
순이자마진*	1.47	1.50	1.59	1.59	1.55
예대금리차*	1.39	1.41	1.54	1.54	1.50
비용/이익	42.6	45.2	40.9	38.7	37.4
BIS 자기자본비율	15.6	15.6	14.4	14.3	14.1
Tier 1 자본비율	14.8	14.9	13.8	13.6	13.5
Tier 2 자본비율	0.8	0.7	0.6	0.6	0.6
보통주 자본비율	13.2	13.4	13.0	13.1	13.1
단순자기자본비율	6.4	6.5	6.7	7.2	7.6

참고: * 은행기준

자료: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추정

12월 31일 기준	총전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주당장부가 (원)	P/E (배)	P/B (배)	ROA (%)	ROE (%)	CET-1 비율 (%)	배당수익률 (%)
2024	6,272	3,739	13,017	11.2	133,682	4.4	0.4	0.6	10.1	13.2	6.0
2025	5,880	4,003	14,382	10.5	144,244	6.5	0.7	0.6	10.2	13.4	4.4
2026E	7,354	4,628	17,046	18.5	155,468	7.5	0.8	0.7	11.2	13.0	3.6
2027E	8,329	4,963	19,038	11.7	170,753	6.7	0.8	0.7	11.4	13.1	4.1
2028E	9,098	5,206	20,839	9.5	186,934	6.2	0.7	0.7	11.3	13.1	4.7

자료: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추정

기업은행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현금및현금등가물	18,354	24,611	16,960	17,649	18,366
유가증권	93,265	99,228	108,029	112,416	116,980
대출채권	344,387	358,677	380,044	400,496	422,046
이자부자산	456,006	482,516	505,033	530,560	557,392
고정자산	3,940	4,057	4,199	4,370	4,547
기타자산	12,274	14,121	18,722	19,483	20,274
자산총계	472,220	500,693	527,955	554,413	582,213
예수금	158,256	168,163	170,225	179,422	189,102
차입금	44,777	50,380	50,319	52,362	54,488
사채	193,151	203,390	214,610	223,324	232,392
이자부부채	396,184	421,934	443,216	463,606	484,937
기타부채	41,805	41,903	45,644	49,815	54,197
부채총계	437,989	463,837	488,860	513,421	539,135
자본금	4,211	4,211	4,211	4,211	4,211
신종자본증권	4,313	4,683	5,182	5,182	5,182
자본잉여금	1,170	1,179	1,179	1,179	1,179
이익잉여금	23,593	25,396	27,157	29,053	31,140
자본조정	(0)	(1)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59	986	965	965	965
소수주주지분	284	401	402	402	402
자본총계	34,231	36,856	39,095	40,991	43,078

자산건전성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고정미하여신/총여신	1.3	1.3	1.1	1.1	1.0
요주의미하여신/총여신	2.9	3.0	2.7	2.6	2.4
대손충당금/고정미하여신	197.3	197.5	218.3	229.8	241.0
대손충당금/요주의미하여신	90.1	85.1	91.3	96.3	101.3
대손충당금/총여신	2.6	2.5	2.5	2.5	2.4
순상각/고정미하여신	28.6	29.1	34.5	33.8	33.3
순상각/총여신	0.4	0.4	0.4	0.4	0.3
대손충당금 적립액/총여신	0.57	0.55	0.50	0.45	0.42

주당 data

12월 31일 기준 (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EPS	3,106	3,184	3,302	3,364	3,646
주당장부가	34,537	37,049	38,638	40,650	42,863
주당 배당금 - 보통주	1,065	1,114	1,184	1,242	1,383
배당성향 (%)	32.1	35.0	36.0	37.0	38.0
주주환원율 (%)	32.1	35.0	36.0	37.0	38.0

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이자수익	18,955	17,764	17,907	18,731	19,678
이자비용	(11,063)	(10,015)	(9,835)	(10,446)	(10,997)
순이자이익	7,892	7,749	8,072	8,285	8,680
대손충당금	(1,832)	(1,827)	(1,753)	(1,664)	(1,618)
충당금적립후순이자수익	6,059	5,922	6,319	6,621	7,063
순수수료이익	472	432	472	477	481
기타비이자이익합계	(124)	484	205	172	193
총이익	6,407	6,838	6,996	7,269	7,737
판매비와관리비	(2,813)	(3,183)	(3,251)	(3,362)	(3,478)
영업이익	3,594	3,656	3,745	3,907	4,259
기타영업외이익	(27)	9	124	131	13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568	3,665	3,869	4,038	4,397
법인세	913	946	1,016	1,110	1,209
당기순이익	2,654	2,719	2,853	2,927	3,188
소수주주지분	10	8	19	21	23
당기순이익(연결)	2,645	2,711	2,833	2,906	3,165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5,366	5,413	5,429	5,501	5,805

재무비율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ROAA	0.6	0.6	0.6	0.5	0.6
ROAE	9.3	8.9	8.7	8.5	8.7
대출금성장률 (원화기준)	8.9	4.0	5.8	5.4	5.4
예수금성장률 (원화기준)	2.7	6.3	1.2	5.4	5.4
자산성장률	5.3	6.0	5.4	5.0	5.0
대출금/예수금 (원화기준)	2.4	2.4	2.5	2.5	2.5
순이자마진*	1.70	1.58	1.60	1.56	1.55
예대금리차*	1.61	1.53	1.55	1.51	1.50
비용/이익	34.1	36.7	37.2	37.6	37.2
BIS 자기자본비율	14.1	14.1	15.1	15.1	15.1
Tier 1 자본비율	12.9	12.9	12.9	12.9	13.0
Tier 2 자본비율	1.2	1.1	2.2	2.2	2.1
보통주 자본비율	11.3	11.5	11.8	11.8	12.0
단순자기자본비율	7.2	7.4	7.4	7.4	7.4

참고: * 은행기준

자료: 기업은행, 삼성증권 추정

12월 31일 기준	총전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주당장부가 (원)	P/E (배)	P/B (배)	ROA (%)	ROE (%)	CET-1 비율 (%)	배당수익률 (%)
2024	5,366	2,645	3,106	0.2	34,537	4.6	0.4	0.6	9.3	11.3	7.4
2025	5,413	2,711	3,184	2.5	37,049	6.6	0.6	0.6	8.9	11.5	5.3
2026E	5,429	2,833	3,302	3.7	38,638	6.4	0.5	0.6	8.7	11.8	5.6
2027E	5,501	2,906	3,364	1.9	40,650	6.3	0.5	0.5	8.5	11.8	5.8
2028E	5,805	3,165	3,646	8.4	42,863	5.8	0.5	0.6	8.7	12.0	6.5

자료: 기업은행, 삼성증권 추정

BNK금융지주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현금및현금등가물	5,818	7,143	5,110	5,401	5,708
유가증권	26,356	27,976	30,056	31,698	33,441
대출채권	112,081	119,565	124,103	130,716	137,726
이자부자산	144,256	154,684	159,270	167,814	176,874
고정자산	2,127	2,151	1,322	1,384	1,450
기타자산	6,087	4,261	8,564	8,559	8,515
자산총계	152,470	161,095	169,156	177,758	186,839
예수금	107,855	224,994	116,937	122,949	129,291
차입금	11,302	11,446	13,074	13,904	14,792
사채	14,122	16,445	18,225	19,410	20,680
이자부부채	133,279	129,923	148,236	156,262	164,762
기타부채	125,526	19,835	9,240	9,337	9,407
부채총계	141,323	149,854	157,574	165,702	174,277
자본금	1,630	1,630	1,630	1,630	1,630
신종자본증권	728	498	498	498	498
자본잉여금	791	791	792	792	792
이익잉여금	7,605	8,017	8,433	8,906	9,413
자본조정	(20)	(0)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4)	(142)	(220)	(220)	(220)
소수주주지분	449	449	449	449	449
자본총계	11,148	11,242	11,582	12,055	12,562

자산건전성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고정미하여신/총여신	0.7	1.2	1.3	1.2	1.1
요주의미하여신/총여신	1.7	2.3	2.4	7.1	6.5
대손충당금/고정미하여신	218.5	123.7	109.3	114.8	125.9
대손충당금/요주의미하여신	94.5	61.9	57.7	19.8	21.7
대손충당금/총여신	1.6	1.4	1.4	1.4	1.4
순상각/고정미하여신	59.7	44.7	38.6	28.7	25.5
순상각/총여신	0.4	0.5	0.5	0.4	0.3
대손충당금 적립액/총여신	0.43	0.52	0.49	0.35	0.29

주당 data

12월 31일 기준 (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EPS	2,274	2,592	2,811	3,272	3,765
주당장부가	31,117	32,738	34,959	37,843	41,187
주당 배당금 - 보통주	650	735	830	940	1,080
배당성향 (%)	28.5	28.1	29.5	28.8	28.7
주주환원율 (%)	33.0	40.4	45.8	50.7	52.3

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이자수익	6,949	6,473	6,459	6,788	7,159
이자비용	(3,972)	(3,519)	(3,383)	(3,562)	(3,817)
순이자이익	2,977	2,953	3,076	3,226	3,342
대손충당금	(895)	(785)	(779)	(761)	(702)
충당금적립후순이자수익	2,082	2,168	2,297	2,466	2,640
순수수료이익	220	179	283	300	312
기타비이자이익합계	140	244	407	448	473
총이익	2,443	2,592	2,987	3,213	3,425
판매비와관리비	(1,567)	(1,690)	(1,802)	(1,867)	(1,936)
영업이익	876	903	1,184	1,346	1,489
기타영업외이익	116	192	2	2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92	1,095	1,186	1,348	1,490
법인세	242	259	310	364	403
당기순이익	750	836	877	984	1,087
소수주주지분	21	21	22	24	26
당기순이익(연결)	729	815	855	960	1,062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1,826	1,768	2,046	2,193	2,281

재무비율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ROAA	0.8	0.9	0.9	1.0	1.1
ROAE	7.5	8.0	8.2	8.8	9.3
대출금성장률 (원화기준)	2.1	3.8	4.7	4.8	4.8
예수금성장률 (원화기준)	0.3	5.9	1.8	4.8	4.8
자산성장률	2.7	5.7	3.0	4.6	4.7
대출금/예수금 (원화기준)	95.0	92.8	95.6	95.6	95.6
순이자마진*	1.89	1.85	1.88	1.88	1.84
예대금리차*	2.19	2.10	2.14	2.14	2.10
비용/이익	47.8	49.8	48.9	48.0	48.4
BIS 자기자본비율	14.1	15.2	15.7	15.5	15.3
Tier 1 자본비율	13.6	13.3	13.9	13.7	13.6
Tier 2 자본비율	0.6	1.9	1.9	1.8	1.7
보통주 자본비율	12.3	12.3	12.2	12.2	12.2
단순자기자본비율	7.3	7.0	6.8	6.8	6.7

참고: * 은행기준

자료: BNK금융지주, 삼성증권 추정

12월 31일 기준	총전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주당장부가 (원)	P/E (배)	P/B (배)	ROA (%)	ROE (%)	CET-1 비율 (%)	배당수익률 (%)
2024	1,826	729	2,274	14.5	31,117	4.5	0.3	0.8	7.5	12.3	6.3
2025	1,768	815	2,592	14.0	32,738	6.1	0.5	0.9	8.0	12.3	4.6
2026E	2,046	855	2,811	8.4	34,959	6.4	0.5	0.9	8.2	12.2	4.6
2027E	2,193	960	3,272	16.4	37,843	5.5	0.5	1.0	8.8	12.2	5.3
2028E	2,281	1,062	3,765	15.1	41,187	4.7	0.4	1.1	9.3	12.2	6.1

자료: BNK금융지주, 삼성증권 추정

iM금융지주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현금및현금등가물	4,126	4,641	4,499	4,781	5,084
유가증권	20,963	24,068	27,209	28,488	29,834
대출채권	67,697	67,706	72,945	77,115	81,547
이자부자산	92,786	96,415	104,652	110,385	116,465
고정자산	1,405	1,427	1,483	1,561	1,644
기타자산	(43)	1,019	3,047	3,203	3,367
자산총계	94,149	98,861	109,182	115,149	121,477
예수금	59,807	59,344	62,270	65,604	69,131
차입금	9,701	11,146	12,804	13,461	14,153
사채	7,827	9,825	10,627	11,217	11,840
이자부부채	83,410	86,515	91,908	96,741	101,846
기타부채	4,533	5,909	10,576	11,427	12,339
부채총계	87,943	92,424	102,483	108,168	114,184
자본금	846	846	846	846	846
신종자본증권	813	863	863	863	863
자본잉여금	1,563	1,563	1,273	1,273	1,273
이익잉여금	3,385	3,631	4,262	4,598	4,969
자본조정	(20)	(1)	(19)	(19)	(1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95)	(682)	(743)	(798)	(857)
소수주주지분	215	217	218	218	218
자본총계	6,206	6,437	6,699	6,981	7,293

자산건전성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고정이하여신/총여신	0.7	0.9	0.8	0.8	0.8
요주의이하여신/총여신	1.8	1.8	1.7	1.7	1.6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222.8	189.7	222.7	221.9	220.9
대손충당금/요주의이하여신	91.1	92.8	104.9	104.6	104.1
대손충당금/총여신	1.6	1.7	1.8	1.8	1.7
순상각/고정이하여신	65.6	57.5	50.8	44.0	42.4
순상각/총여신	0.5	0.5	0.4	0.3	0.3
대손충당금 적립액/총여신	0.6	0.5	0.4	0.4	0.4

주당 data

12월 31일 기준 (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EPS	1,270	2,739	3,354	3,956	4,775
주당장부가	30,612	32,350	35,327	38,747	43,167
주당 배당금 - 보통주	500	700	840	990	1,190
배당성향 (%)	38.7	25.3	25.0	25.0	25.0
주주환원율 (%)	38.7	38.8	43.2	46.3	48.3

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이자수익	4,175	3,804	3,895	4,136	4,368
이자비용	(2,489)	(2,149)	(2,119)	(2,229)	(2,347)
순이자이익	1,686	1,656	1,776	1,907	2,021
대손충당금	(749)	(344)	(391)	(379)	(385)
충당금적립후순이자수익	937	1,312	1,386	1,527	1,636
순수수료이익	191	218	350	360	383
기타비이자이익합계	213	184	149	139	152
총이익	1,341	1,714	1,885	2,027	2,171
판매비와관리비	(1,078)	(1,131)	(1,192)	(1,229)	(1,269)
영업이익	263	583	693	797	902
기타영업외이익	(11)	(2)	33	36	4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53	582	726	834	942
법인세	51	124	187	229	259
당기순이익	202	457	539	604	683
소수주주지분	(13)	14	15	17	18
당기순이익(연결)	215	444	523	588	665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1,048	978	1,135	1,229	1,340

재무비율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ROAA	0.2	0.5	0.5	0.5	0.6
ROAE	4.1	8.4	9.5	10.2	11.0
대출금성장률 (원화기준)	6.0	0.9	5.7	5.3	5.4
예수금성장률 (원화기준)	0.7	4.6	7.9	5.3	5.4
자산성장률	0.8	5.0	10.4	5.5	5.5
대출금/예수금 (원화기준)	101.5	103.7	104.6	104.6	104.6
순이자마진*	1.91	1.80	1.84	1.84	1.82
예대금리차*	2.25	2.07	2.11	2.11	2.09
비용/이익	50.1	51.6	52.6	51.5	50.7
BIS 자기자본비율	16.6	17.3	17.5	17.6	17.8
Tier 1 자본비율	14.6	15.7	15.9	16.1	16.3
Tier 2 자본비율	2.0	1.6	1.6	1.5	1.5
보통주 자본비율	11.7	12.1	12.3	12.4	12.5
단순자기자본비율	14.9	14.5	14.7	14.4	14.2

참고: * 은행기준

자료: iM금융지주, 삼성증권 추정

12월 31일 기준	총전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주당장부가 (원)	P/E (배)	P/B (배)	ROA (%)	ROE (%)	CET-1 비율 (%)	배당수익률 (%)
2024	1,048	215	1,270	(44.6)	30,612	6.4	0.3	0.2	4.1	11.7	6.1
2025	978	444	2,739	115.6	32,350	5.7	0.5	0.5	8.4	12.1	4.5
2026E	1,135	523	3,001	9.6	35,327	5.9	0.5	0.5	9.5	12.3	4.7
2027E	1,229	588	3,956	31.8	38,747	4.5	0.5	0.5	10.2	12.4	5.5
2028E	1,340	665	4,775	20.7	43,167	3.7	0.4	0.6	11.0	12.5	6.7

자료: iM금융지주, 삼성증권 추정

JB금융지주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현금및현금등가물	1,622	2,473	1,834	1,948	2,068
유가증권	10,070	11,120	11,523	12,060	12,625
대출채권	52,050	56,357	60,759	65,162	69,872
이자부자산	63,741	69,950	74,116	79,170	84,565
고정자산	1,350	1,393	1,471	1,560	1,654
기타자산	1,631	1,780	2,246	1,962	1,971
자산총계	66,722	73,124	77,834	82,692	88,190
예수금	44,141	47,780	51,034	54,850	58,935
차입금	2,655	2,870	3,194	3,350	3,515
사채	12,213	14,183	15,211	16,301	17,475
이자부부채	59,008	64,833	69,439	74,502	79,925
기타부채	1,989	2,116	1,869	1,264	602
부채총계	60,997	66,949	71,308	75,766	80,527
자본금	985	985	985	985	985
신종자본증권	520	520	520	520	520
자본잉여금	703	709	709	709	709
이익잉여금	3,425	3,809	4,086	4,486	5,222
자본조정	(56)	(68)	(51)	(51)	(5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	(40)	(3)	(1)	(0)
소수주주지분	144	261	279	279	279
자본총계	5,725	6,175	6,525	6,926	7,663

자산건전성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고정이하여신/총여신	0.9	1.2	1.1	1.1	1.1
요주의이하여신/총여신	2.5	2.9	2.3	2.3	2.3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152.2	110.7	74.1	74.7	74.6
대손충당금/요주의이하여신	40.9	37.6	29.0	29.3	29.2
대손충당금/총여신	1.1	1.2	0.9	0.9	0.9
순상각/고정이하여신	96.8	46.8	52.9	52.0	46.3
순상각/총여신	0.7	0.5	0.6	0.6	0.6
대손충당금 적립액/총여신	0.80	0.58	0.72	0.71	0.63

주당 data

12월 31일 기준 (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EPS	3,483	3,757	3,938	4,433	4,876
주당장부가	26,019	28,532	30,880	33,817	38,664
주당 배당금 - 보통주	995	1,140	1,311	1,507	1,706
배당성향 (%)	28.0	30.0	33.2	34.0	35.0
주주환원율 (%)	32.4	45.0	50.0	50.2	50.0

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이자수익	3,636	3,572	3,760	4,019	4,282
이자비용	(1,660)	(1,527)	(1,545)	(1,644)	(1,774)
순이자이익	1,976	2,045	2,215	2,375	2,508
대손충당금	(480)	(498)	(507)	(526)	(526)
충당금적립후순이자수익	1,496	1,547	1,708	1,848	1,982
순수수료이익	79	54	60	59	54
기타비이자이익합계	161	259	209	215	205
총이익	1,736	1,861	1,977	2,122	2,242
판매비와관리비	(830)	(908)	(958)	(992)	(1,027)
영업이익	906	952	1,019	1,130	1,215
기타영업외이익	2	12	10	12	13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08	965	1,029	1,142	1,228
법인세	215	235	274	314	338
당기순이익	693	730	755	828	890
소수주주지분	15	20	25	25	25
당기순이익(연결)	677	710	730	803	866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1,386	1,450	1,526	1,657	1,741

재무비율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ROAA	1.0	1.0	1.0	1.0	1.0
ROAE	14.0	13.6	13.1	13.6	13.3
대출금성장률 (원화기준)	5.8	8.3	7.8	7.2	7.2
예수금성장률 (원화기준)	2.8	8.2	6.8	7.5	7.4
자산성장률	5.2	9.6	6.4	6.2	6.6
대출금/예수금 (원화기준)	101.0	99.6	98.0	98.0	98.0
순이자마진*	2.68	2.61	2.74	2.77	2.73
예대금리차*	3.15	3.04	3.19	3.22	3.18
비용/이익	37.5	38.5	38.6	37.5	37.1
BIS 자기자본비율	14.3	14.7	15.9	15.6	15.8
Tier 1 자본비율	13.6	14.1	13.9	13.7	14.1
Tier 2 자본비율	0.7	0.6	2.0	1.9	1.7
보통주 자본비율	12.2	12.6	12.6	12.5	13.0
단순자기자본비율	8.6	8.4	8.4	8.4	8.7

참고: * 은행기준

자료: JB금융지주, 삼성증권 추정

12월 31일 기준	총전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주당장부가 (원)	P/E (배)	P/B (배)	ROA (%)	ROE (%)	CET-1 비율 (%)	배당수익률 (%)
2024	1,386	677	3,483	17.1	26,019	4.7	0.6	1.0	14.0	12.2	6.1
2025	1,450	710	3,757	7.9	28,532	6.8	0.9	1.0	13.6	12.6	4.4
2026E	1,526	730	3,938	4.8	30,880	6.6	0.8	1.0	13.1	12.6	5.0
2027E	1,657	803	4,433	12.6	33,817	5.9	0.8	1.0	13.6	12.5	5.8
2028E	1,741	866	4,876	10.0	38,664	5.3	0.7	1.0	13.3	13.0	6.6

자료: JB금융지주, 삼성증권 추정

카카오뱅크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현금 및 예치금	1,855.4	2,113.4	899.4	992.5	1,095.3
투자금융자산	15,277.8	20,802.3	26,193.1	28,904.9	31,897.6
대출채권	44,503.8	51,745.6	55,097.2	60,520.4	66,477.3
이자부자산	61,636.9	74,661.3	82,189.7	90,417.8	99,470.1
기타자산	1,168.4	1,748.4	1,685.3	1,824.2	1,974.6
자산 총계	62,805.3	76,409.8	83,875.0	92,242.0	101,444.7
예수부채	54,971.0	68,323.6	75,051.1	82,438.2	90,552.5
차입부채/사채	0.0	0.0	0.0	0.0	0.0
이자부부채	54,971.0	68,323.6	75,051.1	82,438.2	90,552.5
기타부채	1,294.1	1,336.3	1,769.5	2,056.6	2,393.1
부채 총계	56,265.2	69,659.9	76,820.6	84,494.8	92,945.5
자본금	2,384.8	2,385.1	2,385.6	2,385.6	2,385.6
자본잉여금	2,988.2	2,988.4	2,988.6	2,988.6	2,988.6
이익잉여금	1,123.2	1,432.0	1,830.5	2,523.3	3,275.2
자본조정	0.2	0.1	(7.0)	(7.0)	(7.0)
기타	43.7	(55.7)	(143.3)	(143.3)	(143.3)
자본 총계	6,540.1	6,749.9	7,054.4	7,747.2	8,499.2

주당 data

12월 31일 기준 (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EPS	923	1,007	1,295	1,452	1,576
주당장부가	13,352	13,700	14,138	15,510	17,026
주당 배당금 - 보통주	360	450	650	730	790
배당성향 (%)	39.0	45.0	50.0	50.0	50.0
주주환원 성향 (%)	39.0	45.0	50.0	50.0	50.0

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순이자수익	1,269.4	1,318.6	1,611.3	1,818.2	1,964.5
대손충당금	(270.5)	(243.8)	(285.7)	(316.6)	(347.7)
총당금적립후순이자수익	998.9	1,074.8	1,325.7	1,501.6	1,616.7
순수수료수익	22.6	24.3	40.9	46.5	54.4
기타비이자이익합계	78.6	67.7	(25.3)	45.1	60.9
총이익	1,100.1	1,166.8	1,341.3	1,593.2	1,732.0
판매관리비	(493.2)	(517.5)	(580.9)	(633.2)	(690.2)
영업이익	606.9	649.4	760.3	960.0	1,041.8
기타영업외이익	(18.0)	(9.3)	84.1	(4.4)	(4.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88.9	640.0	844.4	955.6	1,037.2
법인세	148.8	159.8	226.7	262.8	285.2
당기순이익	440.1	480.3	617.7	692.8	752.0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	877.4	893.2	1,046.0	1,276.6	1,389.5

재무비율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ROAA	0.8	0.7	0.8	0.8	0.8
ROAE	7.0	7.2	8.9	9.4	9.3
대출금성장률 (원화기준)	15.1	16.3	6.5	9.8	9.8
예수금성장률 (원화기준)	16.6	24.3	9.8	9.8	9.8
자산성장률	15.3	21.7	9.8	10.0	10.0
대출금/예수금 (원화기준)	81.0	75.7	73.4	73.4	73.4
순이자마진	2.2	1.9	2.1	2.1	2.1
비용/이익	56.2	57.9	55.5	49.6	49.7
BIS 자기자본비율	27.2	23.2	21.1	20.6	20.1
Tier 1 자본비율	26.1	22.0	20.1	19.7	19.3
보통주 자본비율	26.1	22.0	20.1	19.7	19.3
단순자기자본비율	10.4	8.8	8.4	8.4	8.4

자료: 카카오뱅크, 삼성증권 추정

12월 31일 기준	총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주당장부가 (원)	P/E (배)	P/B (배)	ROA (%)	ROE (%)	CET-1 비율 (%)	배당수익률 (%)
2024	877.4	440.1	923	24.0	13,352	22.8	1.6	0.8	7.0	26.1	1.7
2025	893.2	480.3	1,007	9.1	13,700	21.5	1.6	0.7	7.2	22.0	2.1
2026E	1,046.0	617.7	1,295	28.6	14,138	17.7	1.6	0.8	8.9	20.1	2.8
2027E	1,276.6	692.8	1,452	12.2	15,510	15.8	1.5	0.8	9.4	19.7	3.2
2028E	1,389.5	752.0	1,576	8.5	17,026	14.5	1.3	0.8	9.3	19.3	3.4

자료: 카카오뱅크, 삼성증권 추정

케이뱅크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현금 및 예치금	1,015.3	1,413.5	1,135.2	1,277.7	1,372.2
투자금융자산	5,247.1	5,832.9	9,077.5	10,216.8	10,972.5
대출채권	24,404.5	24,065.3	24,977.6	28,736.1	33,243.9
이자부자산	30,667	31,312	35,190	40,231	45,589
기타자산	516	553	643	724	815
자산 총계	31,183	31,864	35,833	40,954	46,403
예수부채	28,569	28,432	30,977	35,028	39,695
차입부채/사채	0	0	0	0	4
이자부부채	28,569	28,432	30,977	35,028	39,699
기타부채	619	1,261	2,075	2,931	3,450
부채 총계	29,188	29,693	33,052	37,959	43,149
자본금	1,878	1,878	2,178	2,178	2,178
자본잉여금	0	0	99	99	99
이익잉여금	113	224	367	581	840
자본조정	2	2	2	2	2
기타	2	67	135	135	135
자본 총계	1,996	2,172	2,781	2,995	3,254

주당 data

12월 31일 기준 (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EPS	353	300	356	528	638
주당장부가	5,312	5,781	6,855	7,383	8,021
주당 배당금 - 보통주	-	-	-	-	-
배당성향 (%)	-	-	-	-	-
주주환원 성향 (%)	-	-	-	-	-

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순이자수익	481.5	444.2	536.3	650.6	760.5
대손충당금	(246.8)	(212.5)	(208.5)	(215.9)	(219.8)
총당금적립후순이자수익	234.8	231.7	327.8	434.7	540.7
순수수료수익	(0.3)	(2.6)	1.7	2.4	3.5
기타비이자이익합계	85.7	116.1	60.3	78.2	95.4
총이익	320.1	345.1	389.8	515.4	639.6
판매관리비	(182.6)	(227.9)	(249.0)	(273.9)	(298.6)
영업이익	137.5	117.2	140.8	241.5	341.0
기타영업외이익	(0.2)	0.0	0.3	0.3	0.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7.3	113.7	141.1	241.8	341.3
법인세	(4.7)	(1.0)	3.2	(27.7)	(82.6)
당기순이익	132.6	112.7	144.2	214.1	258.7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	384.3	329.7	349.2	457.4	560.8

재무비율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ROAA	0.5	0.4	0.4	0.6	0.6
ROAE	6.9	5.4	5.8	7.4	8.3
대출금성장률 (원화기준)	17.6	13.0	15.5	17.7	18.0
예수금성장률 (원화기준)	49.8	(0.5)	9.0	13.1	13.3
자산성장률	45.6	2.2	12.5	14.3	13.3
대출금/예수금 (원화기준)	85.4	84.6	80.6	82.0	83.7
순이자마진	1.9	1.4	1.6	1.7	1.8
비용/이익	32.2	40.9	41.6	37.5	34.7
BIS 자기자본비율	14.7	14.5	21.2	19.8	18.5
Tier 1 자본비율	13.5	12.4	20.2	18.9	17.7
보통주 자본비율	13.5	13.4	21.0	19.7	18.5
단순자기자본비율	6.4	6.8	7.8	7.3	7.0

자료: 케이뱅크,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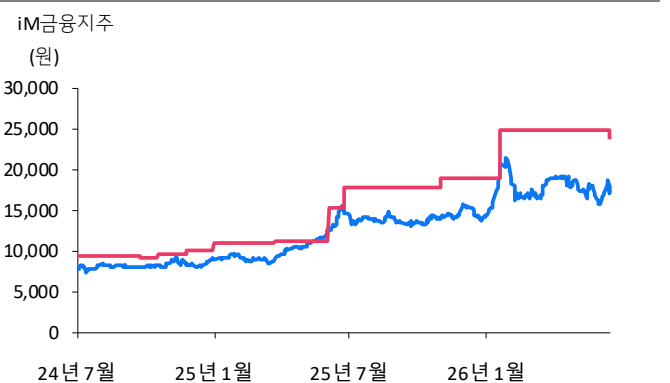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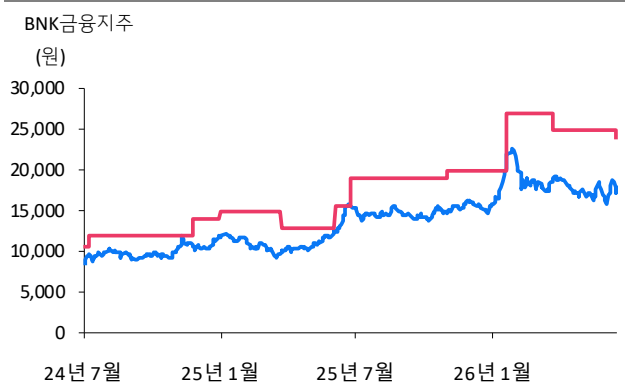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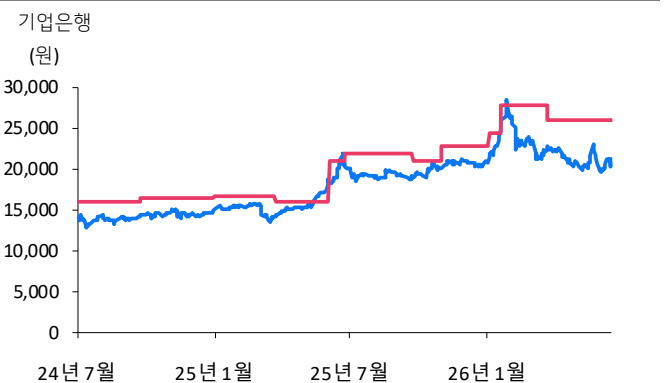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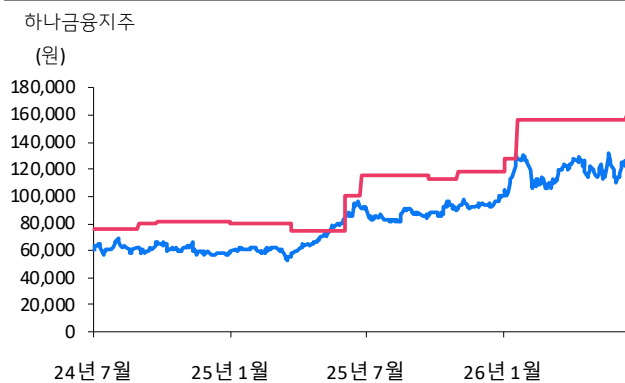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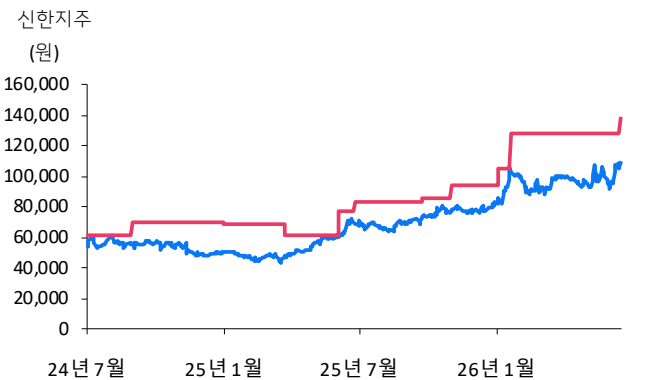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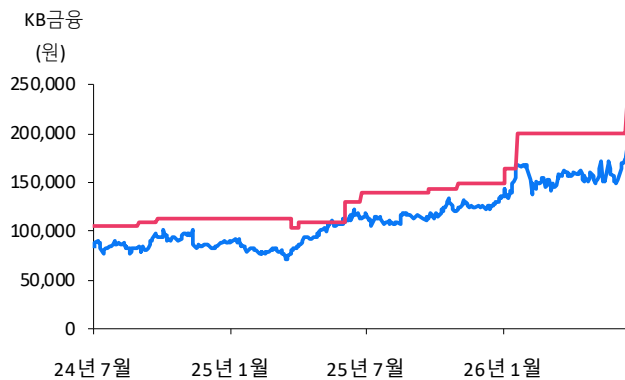
12월 31일 기준	총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주당장부가 (원)	P/E (배)	P/B (배)	ROA (%)	ROE (%)	CET-1 비율 (%)	배당수익률 (%)
2024	384.3	132.6	353	934.9	5,312	n/a	n/a	0.5	6.9	13.5	0.0
2025	329.7	112.7	300	(15.0)	5,781	n/a	n/a	0.4	5.4	13.4	0.0
2026E	349.2	144.2	356	18.5	6,855	15.5	0.8	0.4	5.8	21.0	0.0
2027E	457.4	214.1	528	48.4	7,383	10.5	0.7	0.6	7.4	19.7	0.0
2028E	560.8	258.7	638	20.9	8,021	8.7	0.7	0.6	8.3	18.5	0.0

자료: 케이뱅크,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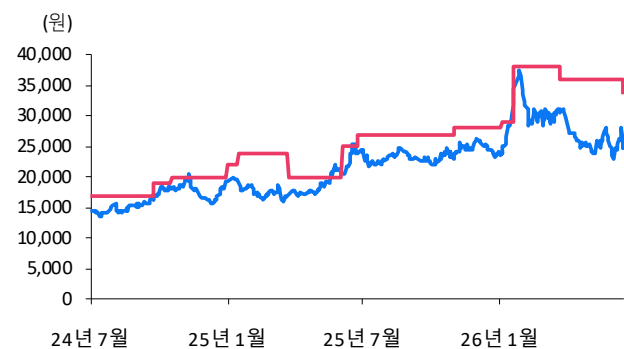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7월 10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케이뱅크의 증시 상장의 대표주관회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10일 현재 BNK금융지주의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7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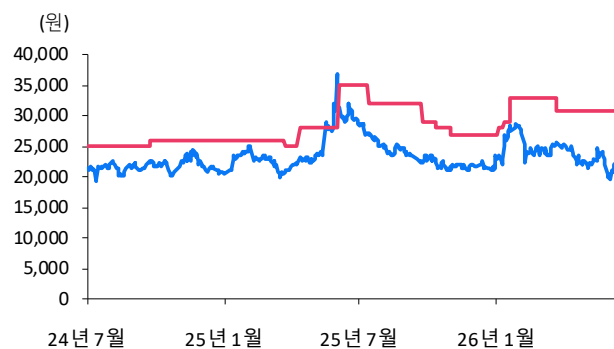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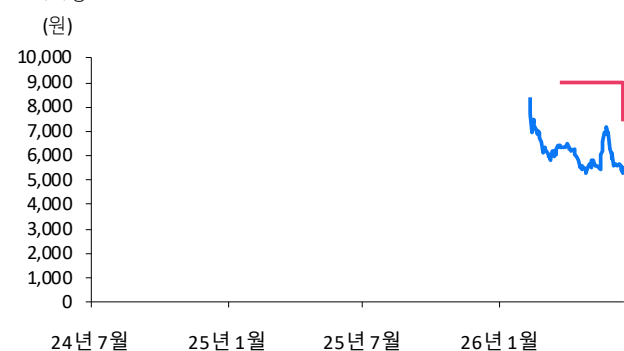
JB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KB금융												
일 자	2024/7/12	7/24	9/23	10/17	2025/4/15	4/25	6/27	7/18	10/17	11/25	2026/1/27	2/13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100000	105000	110000	113000	104000	110000	130000	140000	143000	150000	165000	200000
과리율 (평균)	-14.59	-19.39	-21.04	-23.75	-20.54	-8.40	-11.01	-19.36	-14.92	-14.99	-11.40	-21.62
과리율 (최대or최소)	-11.70	-13.52	-11.64	-10.44	-18.27	2.09	-6.15	-14.57	-5.80	-8.80	2.12	-7.80
일 자	7/13											
투자의견	BUY											
TP (원)	230000											
과리율 (평균)												
과리율 (최대or최소)												
신한지주												
일 자	2024/7/12	9/23	2025/1/23	4/15	6/27	7/18	10/17	11/25	2026/1/27	2/13	2026/7/13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61000	70000	69000	62000	77000	83000	86000	94000	105000	128000	138000	
과리율 (평균)	-7.88	-24.09	-31.23	-11.85	-12.80	-17.74	-11.41	-16.22	-12.96	-24.12		
과리율 (최대or최소)	0.66	-17.00	-25.94	-1.61	-6.75	-12.41	-5.35	-10.74	0.95	-14.69		
하나금융지주												
일 자	2024/7/12	9/23	10/17	2025/1/23	4/15	6/27	7/18	10/17	11/25	2026/1/27	2/13	4/16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76000	80000	81000	80000	74000	101000	115000	113000	119000	128000	156000	157000
과리율 (평균)	-17.99	-23.57	-25.40	-24.86	-5.81	-10.23	-25.24	-20.20	-20.43	-11.60	-26.52	-22.81
과리율 (최대or최소)	-9.47	-17.75	-17.90	-21.75	12.84	-4.46	-19.57	-14.69	-14.96	1.56	-15.83	-15.92
일 자	7/13											
투자의견	BUY											
TP (원)	161000											
과리율 (평균)												
과리율 (최대or최소)												
기업은행												
일 자	2024/7/12	10/17	2025/1/23	4/15	6/27	7/18	10/17	11/25	2026/1/27	2/13	4/16	
투자의견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TP (원)	16000	16500	16800	16000	21000	22000	21000	23000	24600	28000	26000	
과리율 (평균)	-13.03	-11.68	-9.61	-0.86	-5.01	-11.84	-5.60	-9.51	-5.95	-16.00		
과리율 (최대or최소)	-9.25	-8.06	-5.95	17.44	4.76	-7.95	-1.19	-7.17	6.30	1.96		
BNK금융지주												
일 자	2024/7/12	7/31	12/18	2025/1/23	4/15	6/27	7/18	11/25	2026/2/13	4/16	7/13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10500	12000	14000	15000	13000	15600	19000	20000	27000	25000	24000	
과리율 (평균)	-16.59	-18.16	-22.55	-27.38	-16.06	-8.05	-22.78	-19.30	-30.12	-29.32		
과리율 (최대or최소)	-9.43	-1.00	-14.57	-18.93	-2.23	2.24	-17.79	7.25	-16.11	-23.24		
iM금융지주												
일 자	2024/7/12	10/17	11/11	12/18	2025/1/23	4/15	6/27	7/18	11/25	2026/2/13	7/13	
투자의견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BUY	BUY	BUY	BUY	BUY	
TP (원)	9500	9300	9800	10200	11000	11300	15400	18000	19000	25000	24000	
과리율 (평균)	-14.48	-11.94	-12.15	-16.48	-16.85	-4.73	-7.91	-22.67	-20.20	-28.58		
과리율 (최대or최소)	-11.05	-11.08	-4.80	-10.29	-11.18	11.33	0.71	-17.44	6.58	-13.40		

JB금융지주												
일 자	2024/7/12	10/17	11/11	2025/1/23	2/7	4/15	6/27	7/18	11/25	2026/1/27	2/13	4/16
투자의견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TP (원)	17000	19000	20000	22000	24000	20000	25000	27000	28000	29000	38000	36000
과리율 (평균)	-12.61	-6.18	-10.99	-11.17	-27.13	-7.02	-7.20	-14.05	-11.68	-3.39	-18.83	-27.40
과리율 (최대or최소)	-2.94	-2.74	2.25	-10.14	-22.04	9.50	1.40	-7.78	-6.07	17.41	-1.32	-13.06
일 자	7/13											
투자의견	HOLD											
TP (원)	34000											
과리율 (평균)												
과리율 (최대or최소)												
카카오뱅크												
일 자	2025/5/7	6/27	8/6	10/17	11/5	11/25	2026/1/27	2/4	2/13	4/16	7/13	
투자의견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TP (원)	28000	35000	32000	29000	28000	27000	28000	29000	33000	31000	28000	
과리율 (평균)	-6.99	-16.34	-23.19	-20.16	-22.51	-19.53	-17.71	-6.06	-24.27	-26.10		
과리율 (최대or최소)	32.14	-8.57	-15.00	-18.45	-19.46	-12.96	-15.71	-1.55	-13.03	-18.23		
케이뱅크												
일 자	2026/4/17	7/13										
투자의견	BUY	BUY										
TP (원)	9000	7500										
과리율 (평균)	-34.20											
과리율 (최대or최소)	-20.00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15% 내외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산업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NEUTRAL(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6.06.30 기준

매수(85.5%)·중립(14.5%)·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